

宋·遼·金·元 수저(匙箸) 編年研究

- 어미형순가락의 출현 -

정 의 도*

〈목 차〉

- I. 서
- II. 수저출토유적
- III. 수저의 편년과 특징
- IV. 어미형순가락의 출현
- V. 결론

국문요약

중국 송대~원대 순가락은 墳墓나 佛敎遺蹟, 窖藏 등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절대연대가 확인되는 유물들을 중심으로 편년을 시도하고 차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순가락연구의 비교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송대의 순가락의 형태는 당대의 순가락 전통을 이어받아 큰 변화 없이 이어지는 양상이었으나 자루의 끝이 삼각형을 띠면서 넓어지는 변화가 발생한다. 북방의 요에서는 순가락 자루의 끝에 쌍어를 새기거나 오리의 물갈퀴형 자루가 나타나는데 북송과 남송에서 순가락의 자루가 넓어지는 경향과는 구별된다.

遼陳國公主墓의 雙魚紋이 부가된 순가락의 자루는 쌍어의 몸체를 새기면서 일차로 넓어지고 꼬리를 새기면서 다시 한번 넓어지는 형태이다. 이처럼 2차에 걸쳐 쌍어를 표현하기 위하여 자루가 넓어지는 것이 형식화되어 나타난 예가 요대 말기의 선화요묘M3호의 칠시와 선화요묘 M1호 벽화의 연미형 순가락, 그리고 금대에 출현하는 연미형순가락이라 할 수 있다.

* 韓國文物研究院

이 논문은 2009년도 “재단법인 한국문화연구원 학술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이와 같은 변화는 요대 말기에 이르러 자루의 끝이 좌우로 갈라지는 소위 燕尾形이 출현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중국수저 편년안을 기준으로 하면 소위 본격적인 연미형의 출현은 요대 말기에 해당되고 연미형은 금대에는 완전히 하나의 형식으로 정착되어 원대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문은 공예품에서 주로 쌍어로 나타나며 이는 雌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때 夫婦融合과 和睦을 상징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子孫繁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대에는 전기간에 걸쳐 어문을 선호하였으며 특히 금대에는 쌍어문경이 유행하게 되는데 요대 초기에 쌍어문을 손가락에 새기던 것이 요대 말에서 금대에 이르러 쌍어문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자 쌍어문을 보다 간략화하여 손가락에 새긴 것이 연미형손가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이 연미형이라는 용어는 손가락 자루의 형태만을 두고 붙여진 용어에 불과하고 자루의 끝이 좌우로 갈라진 것이 쌍어문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쌍어의 상징성과 형태를 아우르는 『魚尾形』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연미형손가락은 고려에서는 13세기 전반 경이 되어야 등장하고 고려분묘에서 출토되는 『X』자형 가위의 부장시기도 13세기 후반 경으로 편년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어미형 손가락은 12세기 전반에는 이미 나타나고 『X』자형 가위도 11세기 후반 또는 12세기 초반이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점은 고려는 요와 금과의 교류가 간단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자기나 동경 등은 별 다른 시차없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12세기 전반에 나타나는 어미형손가락이나 『X』자형 가위가 어째서 고려에서는 13세기 후반이 되어야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100년이라는 세월을 쉽게 메울 수 없으므로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주제어 : 송, 요, 금, 원, 분묘, 지궁, 교장, 연미형-어미형손가락, 봉미형손가락, 쌍어문, 부귀영화, 『8』자형가위, 『X』자형가위, 교류

I. 서

이 글은 필자가 발표한 고려시대의 청동수저에 대한 연구와 송·요·금·원묘에서 출토되는 수저나 철제가위의 출토경향에 대한 논문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¹⁾ 앞선 글에서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청동수저가 무덤에 부장되게 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며 어떤 배경에서 청동수저가 부장품으로 선택되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고려묘나 조선묘에서 출토되는 청동수저에 대한 편년이 손가락 자체가 가지는 보수성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자사의 편년을 차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손가락이 출토되는 무덤은 전체 조사된 것에 비하여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묘지가 발견되어 유물의 하한이 분명한 것이 적지 않다. 이처럼 절대연대를 가진 수저를 중심으로 송~원의 청동수저 편년을 시도하여 우리나라 고려시대 이후 분묘에서 출토되는 청동수저 편년연구의 비교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논문의 목적이 되겠다.

이를 위하여 먼저 유적 가운데 청동 손가락과 젓가락이 출토되는 유적을 골라 시대순으로 배열하여 손가락의 지역과 시대에 따른 변화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손가락의 술부를 기준으로 타원형과 유엽형으로 나눌 수 있고 자루를 기준으로 하면 자루의 끝이 호형나 능형을 이루면서 막힌 것(鳳尾形)과 삼각형으로 넓어지면서 둘로 좌우로 나누어지는 것(燕尾形)으로 구분된다.²⁾ 그리고 술부가 타원형인 것은 봉미형인 경우가 많고 유엽형인 것은 연미형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손가락이 지역적이거나 신분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시대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별다른 문제 인식이 없는 듯하다. 또한 송나라 이전 즉 당나라의 손가락이나 통일신라의 손가락을 보면 모두 봉미형이므로 연미형은 후행하는 양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연미형은 언제, 어떤 배경에서 발생하여 고려로 전래되었는지에 대한 답

1) 鄭義道, 2007, 『韓國古代靑銅匙箸研究-高麗時代-』, 『石堂論叢』第38輯, 東亞大學校 石堂學術院
——, 2007, 『高麗時代 鐵製가위(鐵鋏)研究』, 『慶文論叢』創刊號, 慶南文化財研究院
——, 2009, 『宋·遼·金·元墓 匙箸 및 鐵鋏 出土傾向-高麗墓 副葬品과 關聯하여-』, 『文物研究』第15號, 財團法人 東아시아文物研究學術財團

2) 필자는 손가락 자루의 끝이 능형(삼각형)을 띠는 것을 『稜形손가락』으로 형식분류하였으나 이번 글에서는 연미형이라는 형식에 대비하여 『鳳尾形』이라고 칭하기로 하였다.(鄭義道, 2007, 『韓國古代靑銅匙箸研究-高麗時代-』, 『石堂論叢』第38輯, 東亞大學校 石堂學術院.)

도 아직 우리는 아는 바가 없는 듯하다.

이번 논문에서 순가락연구의 많은 문제점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염두에 두고 차후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니 선배 동학의 많은 가르침을 바란다.

II. 수저 출토유적

송대에서 원대까지 편년의 대상이 되는 수저가 출토되는 유적은 분묘가 주류를 이루지만 교장유적도 빼놓을 수 없고 사리탑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자료를 보완하는 뜻에서 벽화에 그려져 있는 순가락이나 젓가락도 포함시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많은 분묘들이 도굴의 피해를 입어 매장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점과 소개하는 모든 자료를 필자가 실견한 것이 아니라 도상에서 이해하였다는 것도 유물의 해석에 또 다른 문제점이 될 것이다. 다음은 수저가 출토된 유적을 왕조별로 분류한 것인데 이것은 따로 표를 만들어 제시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³⁾

1. 北宋(960~1126)~南宋(1127~1279) [표 1-복송·남송]

1) 江蘇省 常州市紅梅新村의 제2호 송묘에서 黑檀으로 제작한 젓가락 1쌍이 출토되었다. 가는 棒狀으로 위는 두텁고 아래는 가늘다. 가운데는 꽃을 새기고 은을 입혀 장식하였다. 길이는 32.5cm에 이르는데 일반적인 餐具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호묘에서 출토된 白瓷盒이 江西省 瑞昌縣 黃橋公社에서 1982년 출토된 天慶3年(1025)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11세기 전반 경으로 편년된다.⁴⁾

2) 江蘇省 无錫興竹宋墓에서 조사된 2기의 분묘 중 熙寧4년~7년(1071~1073)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1호에서 은제 순가락이 출토되었다. 슬부

³⁾ 각 유적에서 수저와 함께 동반하여 출토되는 유물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鄭義道, 2009 『宋·遼·金·元墓 匙箸 및 鐵鈇 出土傾向-高麗墓 副葬品과 關聯하여-』 『文物研究』 제15호,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

그리고 사진은 보고문에 실려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상태가 대단히 좋지 못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점 독자의 양해를 바라며 차후 현지조사의 기회를 만들어 보완하고자 한다.

⁴⁾ 常州市博物館, 『江蘇常州市紅梅新村宋墓』, 1997-11, 考古. 44~50

는 타원형이며 후단에는 가시형으로 도치된 부분이 있다. 자루는 말각방형으로 휘어져 있으며 자루의 끝은 비교적 넓은데 구멍을 뚫어 화판장식을 하였다. 길이는 19cm이다.⁵⁷⁾

3) 江蘇省 溧陽竹簣北宋李彬夫婦墓는 元祐6년(1091)에 조성된 것으로 청동제 순가락과 은제 젓가락이 출토되었다고 하였으나 그 형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⁶⁷⁾ 아울러 무석에서는 11기의 송묘가 발견되었고 대체적으로 송대 초기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토유물 가운데 칠기로 제작한 국자와 젓가락이 포함되어 있으나 역시 자세한 설명은 없다.⁷¹⁾

4) 雲夢縣 單子墩宋墓에서는 동한묘 1기(M1)와 송묘 2기(M2, M3)가 발견되었다. 그 중 M3호에서 젓가락 한쌍과 순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모두 은제이며 젓가락은 단면 원형이고 중상단에 五道凸弦紋을 새겼고 길이 19cm, 순가락은 술부가 유엽형이며 자루는 비교적 평평하다. 술부는 길이 7cm, 너비는 3cm이다. 묘의 조성연대는 출토된 유물로 보아 元祐年間(1086~1094)으로 추정된다.⁶⁸⁾

5) 安徽省 全椒西石北宋墓에서는 동제 순가락1점과 은제 젓가락 1쌍이 출토되었다. 元祐7년(1092)에 축조된 분묘인데 도면을 참고하면 순가락과 젓가락 모두 시신의 발치에서 출토되었다. 크기는 순가락이 24cm, 젓가락은 25cm인데 손잡이 부분의 단면은 육각형, 하단은 원형이다. 출토유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젓가락이 순가락보다 긴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다.⁶⁹⁾

6) 洛陽邙山宋代壁畫墓는 北宋 崇寧2年(1103)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은제 순가락과 은제 젓가락이 출토되었다. 순가락은 피장자의 왼쪽 팔꿈치 안쪽 은제 젓가락의 위에 놓여 있었다. 비교적 긴 순가락 자루의 끝은 엽상이며 배면에는 「文伯」 2자를 새겼고 길이는 24.6cm이다. 은제 젓가락은 1쌍이 출토되었는데 상부의 단면은 육각형, 중간은 죽절형, 아래는 원주형이다. 상부에는 대칭되게

57) 无錫市博物館, 『江蘇无錫興竹宋墓』, 1990-3, 文物, 19~23

67) 鎮江市博物館·溧陽縣文化館, 『江蘇溧陽竹簣北宋李彬夫婦墓』, 1980-5, 文物, 34~39

71) 朱江, 『無錫宋墓清理紀要』, 1956-4, 文物, 19

68) 雲夢縣博物館, 『雲夢單子墩宋墓發掘簡報』, 1987-1, 江漢考古, 16~18

69) 滁縣地區行署文化局·全椒縣文化局, 『安徽全椒西石北宋墓』, 1998-11, 文物, 66~71

「云甫」, 「明之」라고 새겼다. 길이는 23.4cm로 숟가락 길이보다 조금 짧다.¹⁰⁾(도면)

7) 河南省 方城鹽店庄村宋墓에서 모두 10지의 石箸가 발견되었다. 길이가 19cm, 중간과 상부에 새끼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 무덤은 宣化開元(1119)에 축조된 것이다.¹¹⁾

8) 江蘇省 吳縣藏書公社의 조립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송묘에서 3점의 은제 숟가락이 출토되었다. 1점은 원형으로 술부가 장타원이고 길이 12.5cm, 너비 3cm이다. 다른 1점은 橄欖形이며 길이 5.7cm, 나머지 1점은 자루가 결실되어 2cm 가량의 술부만 남아 있다. 출토유물로 보아 북송 말년(12세기 초)에 편년된다.¹²⁾

9) 重慶 巫山縣巫峽鎮秀峰村墓에서는 서한 토강묘 3기, 동한 전실묘 2기, 송대 전실묘 1기가 조사되었다. 송묘에서는 동잠, 동경, 철제 가위와 더불어 청동제 숟가락 2점 출토되었고 축조시기는 북송말년(12세기 초)으로 편년된다. 그 가운데 1점은 파손되었고 1점은 자루가 가늘고 곧은 편이지만 술부는 타원형을 이룬다. 별다른 장식은 없고 길이 7.6cm, 술부 너비 1.7cm, 자루 너비 0.5cm이다.¹³⁾

10) 江蘇省 常州北環新村的 주택공사에서 1기의 송묘가 발견되었는데 목관 내부에는 은제 숟가락 1점, 쌍두 은제 숟가락 1점, 은제 젓가락 1쌍이 출토되었다. 은제 숟가락의 술부는 타원형이며 약간 오목하다. 자루는 편평하지만 좁고 길게 제작되었고 무늬는 없고 길이는 23.5cm이다. 술부가 두 개인 숟가락 1점(약시?)의 술부는 한쪽은 타원형이고 한쪽은 편원인데 약간 오목하다. 길이는 19cm이다. 은제 젓가락은 상단은 방형으로 하단은 원형으로 제작하였고 길이는 23.5cm이다. 무덤 내부에 辛卯銘 칠탁자가 출토되어 宋 徽宗 政和年間(1111~1117)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¹⁴⁾

10) 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 『洛陽邙山宋代壁畫墓』, 1992-12, 文物, 37~51

11)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 『河南方城鹽店庄村宋墓』, 1958-11, 文物參考資料, 75~76

12) 葉玉奇·王建華, 『江蘇吳縣藏書公社出土宋代遺物』, 1986-5, 文物, 78~80

13) 四川省文物考古研究所·巫山縣文物管理所·重慶市文化局三峽文物保護工作領導小組, 『重慶巫山縣巫峽鎮秀峰村墓地發掘簡報』, 2004-10, 考古, 47~61

14) 常州市博物館, 『江蘇常州北環新村宋木槨墓』, 1984-8, 考古, 65~69

11) 安徽省 合肥市 郊外 城南鄉에서 발견된 北宋馬紹庭夫妻合葬墓에서 동제 숟가락과 젓가락, 칠기 숟가락과 젓가락이 출토되었다. 1호관(남성)에서는 동제 숟가락 2점이 출토되었는데 술부는 유엽형이고 약간 오목하다. 무문이고 도금되어 있으나 대부분 탈락되었다. 그 중 1점은 편평하고 호형의 자루 중간이 가장 높다. 자루의 끝단은 삼각형이고 길이는 25cm이다. 그리고 젓가락은 원형으로 아래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길이는 25.2cm이다. 2호관에서 발견된 칠기 숟가락은 목심에 무문이고 전체적으로 검붉은 색을 띤다. 칠은 비교적 두텁게 발랐고 술부는 유엽형이며 긴 자루는 원주형이다. 남은 길이 23.5cm이고 너비 3.3cm이다. 젓가락 1쌍은 원형은 아니며 원주형이고 아래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숟가락과는 달리 죽심이며 전체적으로 검붉은 색을 띤다. 남은 길이 17.5cm. 1호관에서 발견된 묘지에 기록된 「政和戊戌」은 1118년에 해당된다.¹⁵⁷⁾

12) 浙江省 寧波天封塔地宮에서 은제 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무문으로 제작이 정교한 것이다. 전체 길이 10cm, 술부의 너비 2.7cm이다. 천봉탑 지궁에서 출토된 유물은 북송말~남송초에 편년된다.¹⁶⁾

13) 洛陽安樂宋代窖藏에서는 백자와 청자, 영청자와 함께 동제 숟가락 2점이 출토되었는데 길이는 22.5cm이다. 자세한 설명은 남아 있지 않다. 출토 자기로 보아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중반 경으로 편년된다.¹⁷⁾

14) 安徽省 郎溪唐宋墓에서는 모두 9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는데(M13은 당묘) 그 중 M11호에서는 동제 젓가락 1쌍, M15호에서는 은제 젓가락 1쌍이 출토되었다. M11호의 젓가락은 한 점은 절단되었고 나머지 1점은 상단은 두껍고 하단은 얇은 편인데 상단에는 凹弦紋 4줄을 새겼다. 길이 20.5cm, 직경 0.2~0.5cm이다. M15호의 은제 젓가락 가운데 한 점은 절단되었는데 상단은 두껍고 하단은 얇은데 역시 상단에 凹弦紋을 여러 줄 돌렸다. 길이 15.5cm, 직경 0.3~0.5cm이다. 보고자는 이 유적을 북송말~남송초(12세기 중반)에 편년하였다.¹⁸⁾

15) 江浦縣에서 발견된 張同之夫婦墓에서는 은제 숟가락 2점과 은제 젓

157) 合肥市文物管理處, 「合肥北宋馬紹庭夫妻合葬墓」, 1991-3, 文物, 26~38

167) 林士民, 「浙江寧波天封塔地宮發掘報告」, 1991-6, 文物

177) 洛陽市文物工作隊 張劍, 「洛陽安樂宋代窖藏瓷器」, 1986-12, 文物, 69~71

187) 宋永祥, 「安徽郎溪唐宋墓」, 1992-4, 考古, 324~330

가락 1쌍이 장동지의 처 장씨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은제 손가락 1점은 술부는 圓錢形이며 직경4.3cm, 자루는 편병에 길이 15.7cm, 나머지 1점의 술부는 유엽 형에 자루는 앞이 좁고 뒤가 넓은 형태로 자루의 끝은 삼각형을 이룬다. 길이 15.7cm이다. 젓가락은 1쌍으로 긴 원주형에 상단의 직경이 하단보다 크다. 20.2cm. 묘지에 따르면 張同之는 慶元 元年(1195)에 사망하였고 장동지의 처 章氏는 慶元 5년(1199)에 사망하였다.¹⁹⁾ 남자의 무덤에서는 벼루나 묵, 동진지 등 문방구가 출토되고 여자의 무덤에서는 손가락과 젓가락, 은합, 은반, 은발 등 기명이 주로 출토된 것은 부장품에 남녀의 구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6) 山西省 襄汾縣 趙康公社에서 마를 심기 위하여 구덩이를 파던 중 陶罐 내에서 동기와 같이 청동손가락 2점이 출토되었다. 1점은 전체 길이 12.5cm로 술부는 舌狀이며 원주형 자루는 S자 곡선을 이룬다. 자루의 끝에는 직경 4cm의 능화편권 장식이 붙어 있는데 설상이며 자루는 편평한데 앞은 좁고 뒤로 가면서 넓어져 삼각형을 이룬다. 이곳에서 출토된 손가락은 南江市 江浦縣의 南宋 張同之妻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하여 12세기 말경의 유물로 편년된다.²⁰⁾

17) 四川省 閬中縣의 絲綢廠 개건시에 송대의 교장이 발견되었는데 교장 내부에는 다수의 자기와 함께 동제 손가락 111점, 동제 젓가락 122쌍이 출토되었다. 동제 손가락은 2형식으로 나누어지는데 1식(26점)은 병단이 봉미상이고 자루 상면에 5조의 쌍철현문을 새겼다. 길이 25cm. 2식(85점)은 휘어진 자루의 단면이 원형이며 무문이다. 길이 23cm. 젓가락은 모두 같은 형식으로 상단의 직경이 하단의 직경보다 크다. 상단의 끝에는 7조의 쌍철현문을 새겼다. 길이 23cm. 교장에서 출토된 동전 가운데 가장 시기가 늦은 것이 紹興年間(1131~1162)에 제작한 소흥원보로서 교장의 상한은 12세기 중반이 되어 교장의 대체적인 시기는 남송 중기로 편년된다.²¹⁾

18) 四川省 大邑縣安仁鎮의 수구 주변에서 발견된 송대 교장에서 길이 24cm의 청동 젓가락 한쌍이 출토되었다. 교장의 연대는 가장 늦은 동전이 북송의 원우통보이고 남송전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교장에서 출토된 자기가 대부분

19) 南京市博物館, 『江浦黃悅哈南宋張同之夫婦墓』, 1973-4, 文物. 59~63

20) 襄汾縣文化館, 『山西襄汾縣出土宋代銅器』, 1977-12, 文物. 89~90

21) 閬中縣文化館, 張啓明 『四川閬中縣出土宋代窖藏』, 1984-7, 文物. 85~90

북송대 것이고 일부만 남송조기의 수법을 보이고 있어 남송 중반기(12세기 말~13세기 초)로 편년된다.²²⁾

19) 江西省 永修縣에서 송 위왕의 후손 조시주와 그의 처 조씨의 합장묘가 발견되었다. 내부에서 발견된 1점의 은제 수저는 술부가 타원형이며 자루가 남아 있고 자루의 끝에는 「八位」라고 새겼다. 젓가락 1쌍의 상단은 6각형이고 하단은 원주형이나 손상되었다. 크기는 알 수 없다. 조시주부부는 南宋 理宗 嘉熙4年(1240)에 사망하였다.²³⁾

20) 福州茶園山 가운데 소학교 건조장에서 발견된 許峻墓에서 은제 숟가락과 젓가락이 출토되었다. 은제 숟가락의 술부는 유엽형이고 자루는 길고 가늘다. 길이 12.8cm. 은제 젓가락은 1쌍이며 가늘고 길지만 하단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단면 육각형이고 직경 0.4~0.6cm, 길이 21.8cm이다. 무덤에서는 許峻(中室, 1223~1272, 葬咸淳八年/1272), 許峻夫人趙氏(右室, 1234~1287, 葬丁亥年/1287), 宋孺人陳氏(左室, 1227~1249, 葬淳祐庚戌/1250) 등 3개의 묘지가 출토되었는데 숟가락과 젓가락은 좌실에서 출토되었다.²⁴⁾

21) 浙江省 蘭溪市靈洞鄉에서 채석하던 중 발견된 1기의 부부합장묘의 출토유물 가운데 은제 숟가락과 젓가락이 포함되어 있다. 은제 숟가락의 상면에는 「玉三郎」이라고 새겼다. 묘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남묘에서 출토된 동전 38매가 모두 明道元寶(1032~1033)이고 내벽에 인화문이 새겨지고 구연 아래 뇌문이 둘러져 있어 남송대에 축조된 무덤으로 추정된다.²⁵⁾

22) 四川省 德陽縣景福公社 작업 중에 발견된 교장에서 발견된 다수의 유물 가운데 동제 젓가락이 포함되어 있다. 발견된 1점은 단면 원형이며 길이는 24.4cm이다. 유물은 당대의 해수포도문경과 팔괘경을 제외하면 모두 송대의 것이다.²⁶⁾

22) 大邑縣文化館, 『四川大邑縣安仁鎮出土宋代窖藏』1984-7, 文物. 91~94

23) 薛堯, 『江西南城, 清江和永修的宋墓』1965-11, 考古. 571~576

24) 福建省博物館, 『福州茶園山南宋許峻墓』1995-10, 文物. 22~33

25) 蘭溪市博物館, 『浙江蘭溪市南宋墓』1991-7, 考古. 670~672

26) 四川省文物管理委員會·德陽縣文物管理所, 『四川德陽縣發現宋代窖藏』1984-7, 文物. 82~84

2. 遼(916~1125) [표 1-오]

1) 遼寧省 建平縣張家營子 遼墓에서 은제 숟가락과 젓가락이 출토되었다. 숟가락의 편평한 타원형이며 자루는 가늘고 길지만 뒤로 가면서 곡선을 이루고 넓어진다. 길이 26.7cm. 젓가락은 원주형이고 상단은 죽절식이다. 길이 20cm, 직경 0.3cm이다. 그리고 건평현 주록과에서 발견된 요묘에서 발견된 은제숟가락 1점의 술부는 편평하지만 자루는 단으로 갈수록 만곡한다. 전체 길이 27cm 인데 자루의 배면에는 거란문자를 새겼다. 요대 초기에 편년된다.²⁷⁾

2) 赤峰市 阿魯科爾沁旗 罕蘇木蘇木朝克圖山에서 대형의 遼墓가 도굴되었는데 수습조사를 거쳐 피장자는 遼 東丹國 左相 耶律羽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묘는 벽화묘로서 부장품도 다양한 종류의 금기, 은기, 동기, 철기, 도자기, 옥·마노·수정·호박장식 등이 출토되었는데 은제 숟가락도 1점 포함되어 있다. 은제 숟가락은 술부가 대체로 타원형이며 자루는 세장하고 무문이다. 술부의 너비는 3.3cm, 두께 0.1~0.2cm, 전체 길이 30.5cm이다. 묘지에 의하면 야율우는 會同4년(941) 8월에 사망하였고 다음 해 3월 『裂峰之陽』에 장사지냈다고 하였으니 유물의 하한은 942년이 된다.²⁸⁾

3) 內蒙古哲里木盟 奈曼旗青龍山鎮 동북쪽 10km에서 수고공사 중에 遼陳國公主와 駙馬의 합장묘가 완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무덤 내부에는 진귀한 예술품에 해당되는 다양다종한 유물이 부장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도금은제 숟가락(鎏金銀匙) 2점, 은제 숟가락 1점이 포함되어 있다. 도금은제 숟가락의 술부는 평타원형이며 자루는 만곡세장하며 죽절형태를 띤다. 자루의 끝에는 쌍어를 마주보게 새겼고 꼬리가 마주하는 부분에 직경 0.3cm의 원공이 나 있다. 전체 길이 28cm. 은제 숟가락의 술부는 편평 타원형이며 자루는 역시 만곡세장하다. 자루의 말단부는 오리의 물갈퀴처럼 만들었다. 전체 길이 21.8cm. 한편 진국공주는 景宗皇帝의 손녀이며 부마는 蕭紹矩인데 『遼史』에 의하면 공주는 統和9年(1001)에 출생하여 開泰7年(1018)에 사망하였다.²⁹⁾

4) 萬金塔은 農安縣城의 북쪽 30km에 위치하는데 탑기 내의 지궁에서

27) 馮永謙, 『遼寧省建平, 新民的三座遼墓』, 1960-2, 考古, 15~24

28)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赤峰市博物館·阿魯科爾沁旗文物管理所, 『遼耶律羽之墓發掘簡報』, 1996-1, 文物, 4~32

29)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遼陳國公主駙馬合葬墓發掘簡報』, 1987-11, 文物, 4~24

동제 숟가락 5점과 동제 젓가락 8점이 발견되었다. 동제 숟가락이 처음부터 5점이었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목제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숟가락은 자루는 편평하지만 끝은 넓다. 술부는 타원형이다. 전체 길이 13.5cm. 젓가락 8점도 일부 유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면 원형이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진다. 길이 6~6.4cm, 직경 0.15~0.4cm이다. 만금탑의 조성시기는 자기나 동기, 그리고 北宋眞宗 天禧年間(1017~1021)에 주조된 천희통보 등을 참고하여 遼 經宗 開泰年間(1017~1021)을 상한연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⁰⁾

5) 遼 慶州 白塔의 보수과정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은제 숟가락이 1점이 포함되어 있다. 길이 9cm 정도이며 술부의 너비는 2.2cm이다. 술부의 전면에 『千年萬載』라고 새겼다. 자루는 세장하며 뒤로 갈수록 만곡하면서 넓어진다. 은병과 같이 놓여 있었는데 사리를 집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가불사리탑이라고도 하는 백탑의 건립은 遼 重熙16年(1047)에 시작하여 重熙18年(1049) 7월에 사리를 안치하고 密覆封頂하여 완료된다.³¹⁾

6) 建平縣西窯村遼墓에서 발견된 부부합장묘에서 칠기로 제작한 숟가락과 목제 젓가락이 출토되었다. 칠기 숟가락은 목제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목심으로 흑칠을 하였다. 술부는 타원형이며 약간 오목하다. 자루는 만곡하며 길다. 전체 길이 27cm, 술부 길이 6.5cm, 너비 4.3cm, 자루 두께 0.3cm이다. 목제 젓가락을 한 점만 출토되었는데 원주형이며 상단에는 팔도칠현문을 새겼다. 길이 25.6cm, 직경 0.5~0.8cm이다. 이 분묘의 연대는 茶末釉鷄腿罐, 白瓷碗이 요대 초기로 편년되고 출토 동전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의 것이 咸平通寶로 宋眞宗時期(997~1022)에 해당되므로 遼 統和年間(983~1011)-요대 중기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볼 수 있다.³²⁾

7) 內蒙古 敖漢旗沙子溝 1호요묘는 요대 초기(10세기 초)에 속하는 분묘로 빠르게 제작한 젓가락(골저) 9점이 출토되었고,³³⁾ 요 淸寧3年(1057)에 축조된 의현 청하문요묘에서는 1점의 청동젓가락이 출토되었다. 청동젓가락은 1점만 남아 있는데 원주형으로 하단으로 가면서 가늘어진다. 오늘날의 젓가락과 같은 형

30) 劉振華, 『農安萬金塔基出土文物』, 1973-8, 文物, 48~54

31) 德信·張漢君·韓仁信, 『內蒙古巴林右旗慶州白塔發現遼代佛教文物』, 1994-12, 文物, 4~33

32) 李慶發, 『建平西窯村遼墓』, 1991-1, 遼海文物學刊, 120~123

33) 敖漢旗文物管理所, 『內蒙古敖漢旗沙子溝, 大橫溝遼墓』, 1987-10, 考古, 889~904

태이며 길이 24cm, 직경 0.4cm이다.³⁴⁾

8) 北京市房山縣北鄭村 遼塔地宮에서 출토된 重熙20年銘 石函(1.2x1.2x1.02m)에서 다수의 동전과 함께 석외불, 자기, 그리고 동제 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숟가락은 술부는 타원형, 세장만곡하는 자루의 끝이 삼각형을 이루며 전체 길이 15.6cm이다.³⁵⁾ 석함에 새겨진 중희20년은 遼 興宗20年(1051)에 해당된다.

9) 天津薊縣獨樂寺塔의 상층탑실 내에서 동전 65매를 포함하여 169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소재에 따라 금, 은, 동, 옥, 파리, 마노, 수정, 호박, 자기, 나무, 돌 등 12종에 달한다. 은제 숟가락과 젓가락이 출토되었는데 숟가락의 술부는 타원형이며 자루는 만곡형이고 끝은 뾰족하다. 전체 길이 16.8cm. 젓가락은 원주형이며 길이 16.2cm. 상층탑실 내의 출토유물은 모두 요대의 유물인데 자기는 송대 定窯 또는 耀州窯에 속하는 것으로 淸寧4年(1058)명 石函이 하한연대를 제시하고 있다.³⁶⁾

10) 河北省 宣化區 下八里에서는 1974년 張世卿壁畫墓(M1호, 天慶6년, 1116)가 발견된 바 있고 이어서 1989년 3월 장세경벽화묘의 북쪽에서 요금시기의 묘장 2기(M2, M3)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먼저 M1호의 후실 서벽 備茶圖에는 方卓을 그리고 그 위에 白磁碗, 燕尾形 湯杓子, 食盒, 漆盞托, 白磁盞이 놓여 있고 좌측의 인물은 흑색연건을 쓰고 오른손에는 연미형숟가락 자루를 잡고 있다.³⁷⁾ M2호 역시 벽화묘로 내부에서는 풍부한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동제 숟가락과 젓가락도 함께 출토되었다. 동제숟가락의 술부는 舌形이며 자루는 만곡세장하다. 전체 길이 24cm. 젓가락은 한쌍이 출토되었고 길이 24cm이다. M3호에서는 칠기 숟가락 2점과 칠기 젓가락 2벌이 출토되었다. 숟가락의 술부는 설형이고 자루는 세장하며 만곡한다. 자루의 끝은 화관형으로 만들었고 전체적으로 검붉은 색을 띤다. 젓가락은 세장하며 상단은 죽절상을 띠고 전체적으로 검붉은 색을 띤다. 전체 길이 20.7cm.

34) 李文信, 『義縣淸河門遼墓發掘報告』1954, 考古學報 第8冊. 163~202

35) 齊心·劉精義, 『北京市房山縣北鄭村遼塔清理記』1980-2, 考古. 147~158

36) 天津市歷史博物館考古隊·薊縣文物保管所, 『天津薊縣獨樂寺塔』1989-1, 考古學報. 83~119

37) a. 河北省文物研究所 『宣化遼墓』1974~1993년 고고발굴보고, 2001, 文物出版社. 192~238,

b. 河北省文物研究所編 『宣化遼墓壁畫』2001, 文物出版社. 68

한편 M2의 피장자는 張恭誘라는 인물로 遼 天慶3年(1113)에 사망하여 천경7년(1117)에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M3는 부부합장묘로 남성피장자 張世本은 大安4年(1088)에 사망하여 大安9年(1093)에 장사지냈고 그의 처 焦씨는 金 皇統3年(1143)에 사망하여 다음 해에 장세본과 합장하였다. 그러므로 이 두 무덤은 요대 말년과 금대 초년의 시기가 겹쳐 있으며 27년의 시기 차가 난다.³⁸⁾

그리고 장세경묘의 남서쪽과 동남쪽에서 요대 벽화묘 2기(M5, M6)가 발견되었다. M5호(遼天慶7年, 1117)의 피장자는 張世古인데 備茶圖에는 백자완에 연미형 湯杓子가, 비연도의 백자완에는 붉은색의 봉미형 漆杓子가 그려져 있다.³⁹⁾ 또한 이 중 3남2녀와 가구, 기명 등을 그려 차를 준비하는 장면을 그린 M6호의 전실 동벽화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려져 있다. M6호는 도굴이 심하여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묘장의 형식과 벽화의 내용, 도자편 등을 참고하면 요대 만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⁰⁾ 또한 장공유의 조부인 張文藻壁畫墓(M7)도 발굴되어 보고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장세경묘의 동벽화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벽화가 역시 전실 동벽에 그려져 있고 칠기로 제작한 숟가락 2점과 젓가락 2쌍이 출토되었다.

숟가락 1점은 夾紵胎에 주칠을 하였다. 술부는 타원형이며 자루는 만곡형이고 끝부분은 삼각형이다. 술부 길이 8cm, 자루 너비 1.5cm, 전체 길이 25cm이다. 나머지 숟가락 역시 헝지대에 주칠하였으나 자루에는 문양이 없다. 전체적인 형태는 'S'자를 띠고 술부는 편원이며 너비는 3.5cm, 전체 길이 23.2cm이다. 젓가락 1쌍은 주칠을 하였고 세장하다. 상단부는 원주상인데 하단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최대경 1.3cm이고 전체 길이 28.2cm이다. 다른 한쌍은 부러져 있다. 전체 길이 약 25cm이다.

M7호묘의 피장자 장문조는 묘지에 의하면 M2호의 피장자 장공유의 조부가 되는데 咸雍10年(1074)에 사망하여 大安9年(1093)에 개장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장문조의 사망 후 20년이 지나 그의 전처 賈氏와 합장하기 위함이었다.⁴¹⁾

11) 河北省 易縣 淨覺寺의 舍利塔은 『太寧寺塔』이라고도 불리는데 지

38) 張家口市文物事業管理所·張家口市宣化區文物保管所, 『河北宣化下八里遼金壁畫墓』, 1990-10, 文物, 1~19

39) 전계 주37) a. 239~267, b. 77~78

40) 張家口市宣化區文物保管所, 『河北宣化遼代壁畫墓』, 1995-2, 文物, 4~28

41) 河北省文物研究所·張家口市文物管理處·宣化區文物管理所, 『河北宣化遼張文藻壁畫墓發掘簡報』, 1996-9, 文物, 14~46

궁에서 묵서제기와 금기, 도금은기, 은기, 동기, 자기, 동전 등을 수습하였다. 그 가운데 은제 숟가락과 젓가락이 발견되었는데 숟가락의 술부는 타원형이며 자루는 길다. 자루의 단면은 삼각형을 띠고 전체 길이 17.1cm, 두께 0.2cm. 젓가락은 원주형으로 상단이 두껍고 하단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길이 16.5cm. 정각사의 사리탑 지궁은 출토된 묵서에 요대 말기에 해당하는 天慶5年(1115) 3월15일에 건립하였다고 하였다.⁴²⁾

12) 山西省 大同城 서남 5km에 위치한 十里舖에서 2기의 요묘가 발견되었다.(동묘-27호, 서묘-28호) 그 중 27호는 화장묘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대부분의 부장품은 관상 위에 진열되어 있었고 대접 위에 대나무 젓가락 1쌍이 놓여 있었다. 이 무덤은 天慶9年(1119)銘 묘지가 발견된 인근의 新添堡村 동북의 29호묘와 축조수법이 유사하고 벽화의 채색도 일치하여 천경9년보다는 약간 앞서는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⁴³⁾

13) 河北省 涿鹿縣酒廠에서 壁畫墓 1기가 발견되었다. 출토유물은 모두 11점인데 그 중 동제 숟가락 2점, 동제 젓가락 2벌이 포함되어 있다. 숟가락은 이미 상태가 대단히 좋지 못하지만 사진으로 보아 유엽형의 술부에 자루는 끝으로 가면서 약간 넓어진다. 젓가락은 길이가 18.3cm이고 상단의 직경은 0.35cm, 하단의 직경은 0.2cm이다. 이 무덤은 북경지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송요벽화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부 자기가 山西 大同의 新添堡村 동북의 29호묘와 유사하다. 또한 벽화의 내용과 화풍이 河北 宣化 下八里 張世卿壁畫墓(天慶 6년, 1116)과도 서로 닮아 있어 요대 만기의 유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⁴⁾

14) 黑龍江省 肇東縣 蛤蜊城 북쪽 40km 지점에서 4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그 중 2호에서 출토된 청동숟가락 1점은 머리 쪽에 놓여 있었고 전체 길이 22cm이다. 크게 보아 요대로 편년된다.⁴⁵⁾

15) 通遼市 吐尔基山 채석장에서 발견된 1기의 요묘에서 은제 젓가락과 합, 개완, 호 등이 출토되었다. 이상의 유물은 棺床 앞에 놓인 漆案 위에 놓여

42) 河北省文物管理處, 『河北易縣淨覺寺舍利塔地宮清理記』1986-9, 文物. 76~80

43) 山西省文物管理委員會, 『山西大同郊區五座遼壁畫墓』1960-10, 考古. 37~42

44) 張家區地區博物館, 『河北涿鹿縣遼代壁畫墓發掘簡報』1987-3, 考古. 242~245

45) 王修治, 『黑龍江肇東縣蛤蜊城古墓清理簡報』1961-7, 考古. 361~363

있었다. 출토유물은 만당에서 요대조기(10세기 초)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⁴⁶⁾

3. 金(1115~1234) [표 1-3]

1) 吉林省 東遼縣凌雲鄉 三良村의 황토층에서 발견된 유물은 자완, 자접, 동전(皇宋通寶) 등과 동제 순가락 1점이 있다. 순가락은 주조품이며 술부는 윤이 나지만 약간 오목한 부분은 검은 편이다. 자루는 비교적 긴 편인데 자루꼬리는 둘로 갈라진 魚尾形(燕尾形)이다. 중간으로 가면서 좁아졌다가 끝에서 다시 넓어진다. 표면에는 금분의 흔적이 남아 있고 휘어지는 부분에는 팔자형 장식이 드러나 있다. 술부의 길이 7.5cm, 너비 3.15cm, 자루 길이 16.8cm, 너비 0.6~0.8cm이다. 보고자는 전체 유물의 양상이 동제 순가락을 제외하면 거란 혹은 여진의 문화적 특징이 농후한 금대유물이라고 하였다.⁴⁷⁾

2) 문화대혁명 중에 遼寧省 遼陽市 南郊 北園에서 분묘 1기가 발견되었다. 출토 유물 가운데 동제 순가락 1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술부는 편평한 타원형이다. 자루는 연미형이며 끝으로 갈수록 세장하고 만곡한다. 전체 길이 32cm이다. 출토 자기로 보아 금묘로 판단된다.⁴⁸⁾

3) 黑龍江省 克東縣金代蒲峪路 故城發掘에서 뼈로 만든 순가락이 출토되었다. 자루는 훼손되고 타원형의 술부만 남은 것이다. 남은 길이 10.8cm, 너비 3.3cm. 남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大定元寶(1161~1189) 1점이 토벽과 석벽 사이에서 발견되어 성곽의 수축시기를 보여주고 있다.⁴⁹⁾

4) 閻德源墓는 대동성 서쪽 약 1km 지점에 위치한다. 총 90여 점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는데 칠기, 자기, 골기, 도기, 동기, 석제조각품, 인장, 직조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목제 순가락 1점과 젓가락 1쌍은 모두 은을 입혔다. 순가락은 20cm 정도만 남아 있고 젓가락은 28cm 정도 남아 있다. 묘지에 의하면 엄덕원은 금대에 활동한 도사로서 서경의 玉虛觀 宗主大師였다.⁵⁰⁾

46)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內蒙古通遼市吐尔基山遼代墓葬』2004-7, 考古. 50~53

47) 遼陽市文物管理所, 『吉林東遼縣發現遼金文物』2001-10, 考古. 95~96

48) 遼陽市文物管理所, 『遼陽發現遼墓和金墓』1977-12, 文物. 90~92

49)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黑龍江克東縣金代蒲峪路故城發掘』1987-2, 考古. 150~158

50) 大同市博物館, 『大同金代閻德源墓發掘簡報』1978-4, 文物. 1~13

5) 山西省 侯馬 金代董氏墓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젓가락(竹筴) 1쌍이 출토되었다. 묘지에 의하면 피장자는 大安2年(1210)에 안장하였다.⁵¹⁾ 또한 후마 29호묘에서도 목제 젓가락 1쌍이 출토되었는데 축조연대는 大安4年(1212)명 목서가 남아 있는 31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⁵²⁾

6) 山西省 聞喜縣 侯村鄉의 寺底村에서 발견된 금대의 磚雕壁畫墓의 북벽 벽화에 탕표가 그려져 있는데 자루의 꼬리가 연미형으로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 이 벽화묘는 聞喜下陽金代磚雕壁畫墓, 山西長治市故漳金代紀年墓와 화풍이 유사하여 금대 중기(12세기 중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⁵³⁾

4. 元(1271~1368) [표 1-원]

1) 臨澧縣 新合에서 발견된 교장에서 다량의 금은기가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는 은제 숟가락 10점, 은제 젓가락 2쌍이 포함되어 있다. 은제 숟가락 가운데 1식은 전체 길이 31cm, 술부 길이 9cm, 너비 2.5cm이다. 술부는 타원형이며 약간 오목한데 가운데 折枝三葉小花를 새겼다. 자루의 끝은 비교적 넓고 삼각형을 이룬다. 자루의 끝부분에는 12道弦紋을 새겼고 자루와 술부가 연결되는 곳은 점차 가늘어진다. 2식은 게 꺾질형으로 전체 길이 29cm, 술부 길이 6cm, 너비 9cm이다. 그리고 젓가락은 원주형으로 1쌍은 상단이 크고 다른 1쌍은 상단이 작다. 길이 15cm, 큰 것의 직경 0.4cm, 작은 것의 직경 0.2cm이다. 교장의 연대는 출토유물 가운데 金杯나 多花金叉는 남송시기에 속하는 기물인데 簪柄 상부에 「癸未季春」이라고 한 것이 1283년으로 추정되어 원대 초기 또는 중기로 편년된다.⁵⁴⁾

2) 江蘇省 吳縣 蘇州市 虎丘山 북쪽 1리에서 발견된 원묘에서 은제 숟가락 2점이 출토되었다. 1점은 반만 남아 있었고 1점은 완형이다. 완형의 술부 깊이는 얇고 긴 자루의 끝은 물갈퀴형태를 이룬다. 묘지에 의하면 피장자는 呂師孟이라 하고 宋 端平 元年(1234)에 출생하여 元 大德8年(1304)7월에 사망하였고 동년 12월에 장사지냈다. 그의 처는 元 皇慶2年(1313)에 사망하여 延祐2年(1315)에 장사지냈다.⁵⁵⁾

51) 山西省文管會侯馬工作站, 『侯馬金代董氏墓介紹』1959-6, 文物. 50~55

52) 山西省文物管理委員會侯馬工作站, 『山西侯馬金墓發掘簡報』1961-12, 考古. 681~683

53) 聞喜縣博物館, 『山西聞喜寺底金墓』1988-7, 文物. 67~73

54) 常德地區文物工作隊, 『臨澧縣新合出土一批窖藏金銀器』, 湖南考古輯刊②. 113~119

3) 江蘇省 无錫市 남쪽 窯窩里에서 원대 분묘가 발견되었다. 출토유물 가운데 머리 부위에서 금배, 금잠, 은완, 은괘, 은시가 출토되었다. 은제 손가락 2점은 자루가 궁형이며 술부는 얇고 타원형이다. 그 중 1점에는 자루에 『鄧萬四郎』이라고 압인하였고 전체 길이 27.6cm이다. 다른 1점에는 『陳鋪造O』라고 압인하였고 길이는 24.8cm이다. 또 한 점의 손가락은 자루가 편평하고 자루의 끝은 뾰족한 것으로 술부는 능형이며 자루 위에는 『OO四郎』이라고 압인하였다. 길이는 21.2cm이다. 젓가락은 2쌍인데 원주형으로 위가 넓고 아래가 좁다. 1쌍은 속이 차있고 『篠橋東OOOO』이라고 압인하였으며 다른 1쌍은 속이 빈 것으로 『陳鋪造O』라고 압인하였고 길이 24.8cm이다. 묘지에 의하면 피장자 이름은 錢裕이며 宋 淳祐7年(1247)에 출생하여 元 延祐7年(1320)에 사망하였다.⁵⁶⁾

4) 西安 曲江池 西村의 농장에서 발견된 원묘에서 陶製杓子 5점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먼저 다른 표자와는 달리 재질이 도제라는 점에서 특이하지만 자루의 형태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5점 가운데 螭首柄杓 2점, 螭首魚身長柄杓 1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수병표의 크기는 구경 7cm, 자루 길이 4cm이고 내외를 희게 칠하였다. 이수어신장병표의 구연은 타원형이며 구경 4~5.5cm, 자루 길이 14cm이다. 술부는 회색인데 자루는 희게 칠하였다. 그리고 1점은 漏杓인데 회색이고 구경은 5~6.4cm, 자루 길이 12cm이다. 나머지 한 점은 자루가 긴 표 1점이다. 묘지에 따르면 피장자의 이름은 段繼榮이고 壬子十月에 사망하였고 夫人劉氏는 乙丑年十月에 사망하여 다음해 元月十二日에 장사지냈다고 하였다. 여기서 乙丑年은 元 至元2年(1336)에 해당된다.⁵⁷⁾

5) 安徽省 合肥市의 도로공사 중에 출토된 교장에서 다수의 원대 금은기명이 출토되었다. 이 중에는 은제 젓가락 55쌍이 포함되어 있다. 길이는 거의 비슷한데 상단은 팔각형이고 하단은 원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상단과 하단 사이에는 七道弦紋을 새겼다. 같이 출토된 은제표자 1점의 술부는 4엽형에 환저이다. 한편 출토된 금은기의 상면에 『至順癸酉』, 『章仲英造』 등의 명문이 남아 있어 元朝 文宗 至順4年(1333) 전후의 기물로 판단된다.⁵⁸⁾

55) 江蘇省文物管理委員會, 『江蘇吳縣元墓清理簡報』, 1959-11, 文物. 19~24

56) 无錫市博物館, 『江蘇无錫市元墓中出土一批文物』, 1964-12, 文物. 52~60

57)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西安曲江池西村元墓清理簡報』, 1958-6, 文物. 57~61

58) 吳興漢, 『介紹安徽合肥發現的元代金銀器皿』, 1957-2, 文物. 51~58

6) 撫順市 肉聯廠에서 발견된 원묘에서 청백자완과 청백자소접과 함께 청동제 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전체 길이 26cm, 자루 길이 18cm로 기벽은 얇고 무문이다. 자루의 상단에 六道弦紋을 새겼다. 출토된 자기들은 모두 원대 景德鎮 樞府窯에서 제작된 것으로 13세기 말 경으로 추정된다.⁵⁹⁾

7) 赤峰縣 三眼井에서 원대 벽화묘 2기(M1, M2)가 발견되었는데 M1호는 이미 도굴되어 원형을 알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M2호는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벽화는 원대 귀족의 일상생활을 위주로 묘사한 것인데 그 중 宴飲圖에는 연미형 국자(숟가락?)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M2호의 벽화는 민간화가가 그린 것으로 당시 大都의 생활상을 잘 나타내고 있어 원대사회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한다.⁶⁰⁾

8) 南京市 明蘄國公 康茂才의 묘에서 은제 숟가락 1점과 젓가락1쌍이 출토되었다. 숟가락의 술부는 유엽형이고 자루는 세장하며 약간 만곡한다. 술부 길이 7cm, 자루 길이 23cm. 젓가락의 상단은 육각형이고 하단은 원형이다. 젓가락의 중간에 三道凸弦紋이 남아 있다. 길이 26cm. 康茂材는 묘지에 의하면 延祐2年(1315)에 출생하여 洪武3年(1370)에 사망하였다.⁶¹⁾

[표 1] 匙箸出土遺蹟一覽

區分 王朝	番號	遺蹟名	出典	時期	備考
北宋	1	浙江温州五代, 北宋盜制明器	考古, 1993-8, 716~720	五代~北宋	鐵鉢 1(8字形)
	2	江西瑞昌發現南宋紀年墓	考古, 1991-1, 92~94	11세기 초반	銅杓子 1
	3	江蘇常州市紅梅新村宋墓	考古, 1997-11, 44~50	11세기 전반 (天慶3년 前後)	黑檀箸 1雙
	4	淮格尙旗發現西夏窖藏	考古, 1987-8, 91~96	11세기 후반	瓷杓子 1
	5	江蘇無錫興竹宋墓	文物, 1990-3, 19~23	熙寧4년~7년 (1071~1073)	銀匙 1
	6	江蘇溧陽竹簣北宋李彬夫婦墓	文物, 1980-5, 34~39	元祐6년(1091)	銅匙 1, 銀箸 1

59) 徐家國, 『遼寧撫順土口子村元墓』1994-5, 考古. 478

60) 項春松·王建國, 『內蒙昭盟赤峰三眼井元代壁畫墓』1982-1, 文物. 54~58

61) 南京市博物館, 『江蘇南京市明蘄國公康茂材墓』1999-10, 考古. 11~17

區分 王朝	番號	遺蹟名	出典	時期	備考	
	7	無錫宋墓清理紀要	文物, 1956-4, 19	宋初~宋末	漆杓子 1, 漆箸 1	
	8	雲夢罩子墩宋墓發掘簡報	江漢考古, 1987-1, 16~18	元祐年間(1086~1094)	銀匙 1, 銀箸 1双	
	9	安徽全椒西石北宋墓	文物, 1998-11, 66~71	元祐7년(1092)	銅匙 1, 銀箸 1双	
	10	洛陽邙山宋代壁畫墓	文物, 1992-12, 37~51	崇寧2년(1103)	銀匙 1, 銀箸 1双	
	11	河南方城鹽店庄村宋墓	文物參考資料, 1958-11, 75~76	宣化改元(1119)	石箸 10	
	12	江蘇吳縣藏書公社出土宋代遺物	文物, 1986-5, 78~80	복송말(12세기 초반)	銀匙 3	
	13	重慶巫山縣巫峽鎮秀峰村墓地發掘簡報	考古, 2004-10, 47~61	복송말(12세기 초반)	銅匙 2, 鐵剪 1	
	14	江蘇常州北環新村宋木槨墓	考古, 1984-8, 65~69	12세기 초반	銀匙 2, 雙頭銀匙 1점 포함, 銀箸 1双	
	15	合肥北宋馬紹庭夫妻合葬墓	文物, 1991-3, 26~38	政和戊戌(1118)	銅匙 2, 銅箸 1双, 漆匙 1, 漆箸 1双	
	16	浙江東陽市胡前山村發現南宋墓	考古, 1996-9, 89~92	12세기 중반	銀杓子 1	
	17	浙江寧波天封塔地宮發掘報告	文物, 1991-6, 1~27	복송 말~남송 초반	銀匙 1	
	18	洛陽安樂宋代窖藏	文物, 1986-12, 69~71	11세기 말~12세기 초반	銅匙 2	
	南宋	19	安徽郎溪唐宋墓	考古, 1992-4, 324~330	복송 말~남송 초반 (12세기 중반)	銀箸 1双, 銅箸 1双
		20	江浦黃悅齡南宋張同之夫婦墓	文物, 1973-4, 59~63	慶元元年(1195), 慶元5年(1199)	銀匙 2, 銀箸 1双
		21	山西襄汾縣出土宋代銅器	文物, 1977-12, 89~90	12세기 말	銅匙 2
		22	四川閬中縣出土宋代窖藏	文物, 1984-7, 85~90	紹興年間(1131~1162)	銅匙 111, 銅箸 122双
		23	四川大邑縣安仁鎮出土宋代窖藏	文物, 1984-7, 91~94	남송 중반기 (12세기말~13세기초)	銅箸 1双
		24	江西南城, 清江和永修的宋墓	考古, 1965-11, 571~576	嘉熙4년(1240)	銀匙 1, 銀箸 1双
25		福州茶園山南宋許峻墓	文物, 1995-10, 22~33	左室 葬, 淳祐庚戌(1250)	銀匙 1, 銀箸 1双	

區分 王朝	番號	遺蹟名	出典	時期	備考
	26	浙江蘭溪市南宋墓	考古, 1991-7, 670~672	남송	銀匙 1, 銀箸 1双, 銅錢 38枚
	27	四川德陽縣發現宋代窖藏	文物, 1984-7, 82~84	송	銅箸 1
遼	28	遼寧省建平, 新民的三座遼墓	考古, 1960-2, 15~24	요대 초기	銀匙 2, 銀箸 1双
	29	遼耶律羽之墓發掘簡報	文物, 1996-1, 4~32	會同4년(941)	銀匙 1
	30	遼陳國公主駙馬合葬墓發掘簡報	文物, 1987-11, 4~24	開泰7년(1018)	銀匙 3(鎏金銀匙 2점 포함)
	31	農安萬金塔基出土文物	文物, 1973-8, 48~54	開泰年間(1017~1021)	銅匙 5, 銅箸 8
	32	內蒙古巴林右旗慶州白塔發現遼代佛教文物	文物, 1994-12, 4~33	重熙18년(1049)	銀匙 1
	33	建平西窯村遼墓	遼海文物學刊, 1991-1, 120~123	統和年間(983~1011)	漆匙 1, 木製箸 1
	34	內蒙古敖漢旗沙子溝, 大橫溝遼墓	考古, 1987-10, 889~904	清寧3년(1057)	骨箸 9
	35	義縣清河門遼墓發掘報告	考古學報 第8冊, 1954, 163~202	11세기 중반	銅箸 1
	36	北京市房山縣北鄭村遼塔清理記	考古, 1980-2, 147~158	重熙20년(1051)	銅匙 1
	37	天津薊縣獨樂寺塔	考古學報, 1989-1, 83~119	清寧4년(1058)	銀匙 1, 銀箸 1双, 銅錢 65
	38	河北宣化遼張文藻壁畫墓發掘簡報(M7)	文物, 1996-9, 14~46	咸雍10년(1074) 大安9년(1093) 改葬	漆匙 2, 漆箸 2双
	39	河北宣化下八里遼金壁畫墓(M2, M3)	文物, 1990-10, 1~19	M2(天慶7년,1117) M3(大安9년,1093/ 皇統3년,1143)	(M2) 銅匙 1, 銅箸 1双 (M3) 漆匙 2, 漆箸 2双
	40	河北易縣淨覺寺舍利塔地宮清理記	文物, 1986-9, 76~80	天慶5년(1115)	銀匙 1, 銀箸 1双
	41	河北宣化遼代壁畫墓(M1)	宣化遼墓壁畫, 2001, 68	天慶6년(1116)	匙 1, 杓子 1(壁畫)
	42	河北宣化遼代壁畫墓(M5)	宣化遼墓壁畫, 2001, 77~78	天慶7년(1117)	杓子 2(壁畫)
43	河北宣化遼代壁畫墓(M6)	文物, 1995-2, 4~28	요대 만기	匙 1, 箸 1双(壁畫)	

區分 王朝	番號	遺蹟名	出典	時期	備考	
	44	山西大同郊區五座遼壁畫墓	考古, 1960-10, 37~42	天慶9년 이전	竹篔 1雙	
	45	河北涿鹿縣遼代壁畫墓發掘簡報	考古, 1987-3, 242~245	요대 만기	銅匙 2, 銅箸 2雙	
	46	黑龍江肇東縣蛤蜊城古墓清理簡報	考古, 1961-7, 361~363	요대	銅匙 1	
	47	內蒙古通遼市吐介山遼代墓葬	考古, 2004-7, 50~53	요대 초기(10세기 초)	銀箸	
	48	北京南郊遼趙德鈞墓	考古, 1962-5, 246~252	後晉天福2년(遼天顯12년, 937) 에서 수년이내	銅杓子 1	
	49	黑龍江城肇東縣八里城清理簡報	考古, 1960-2, 36~40	요대	骨匙 1	
	50	遼寧康平縣后劉東屯二號遼墓	考古, 1988-9, 819~824	요대 초기	鐵杓子	
	51	突泉縣西山村遼墓	內蒙古文物考古文集, 542~547	요대 중반	杓子 1	
	52	遼寧朝陽前窓戶村遼墓	文物, 1980-12, 17~27	統和22년(1004) 전후	鐵杓子 1	
	53	法庫業茂臺遼墓記略	文物, 1975-2, 26~36	요대 전기	漆杓子 1	
	54	北京順義安辛庄遼墓發掘簡報	文物, 1992-6, 17~23	요대 중기	鐵杓子 1	
	55	北京昌平陳庄遼墓清理簡報	文物, 1993-3, 68~77	12세기 초반	花口杓子 1	
	56	河北平泉縣小古溝遼墓	文物, 1982-7, 986~1031	요대	鐵杓子, 鐵剪	
	57	昭烏達盟寧城縣小劉仗子遼墓發掘簡報	文物, 1961-9, 44~49	요대 만기	火箸 2雙	
	金	58	吉林東遼縣發現遼金文物	考古, 2001-10, 95~96	금대 전기	銅匙 1
		59	遼陽發現遼墓和金墓	文物, 1977-12, 90~92	금대	銅匙 1
		60	黑龍江克東縣金代蒲峪路故城發掘	考古, 1987-2, 150~158	12세기 중반~말	骨匙 1
61		大同金代閭德源墓發掘簡報	文物, 1978-4, 1~13	금대	鍍銀木匙 1, 鍍銀木箸 1雙	
62		侯馬金代董氏墓介紹	文物, 1959-6, 50~55	大安2년(1210)	竹篔 1雙	

區分 王朝	番號	遺蹟名	出典	時期	備考
	63	山西聞喜寺底金墓	文物, 1988-7, 67~73	금대 중기(12세기 중후반)	湯杓(磚雕壁畫墓의 北壁 壁畫)
	64	北京出土의 遼, 金時代鐵器	考古, 1963-3, 140~144	요대~금대	鐵剪 2
	65	北京天壇公園內發現古墓	考古, 1963-3, 171	금초	陶杓子 1, 陶剪 1
	66	山西侯馬金墓發掘簡報	考古, 1961-12, 681~683	大安4년(1212)	木箸 1雙
	67	河北井陘縣栲栳山宋墓發掘報告	考古學報 29冊, 1962, 31~68	요대	北孤臺墓區 4號-金墓에 彫壁畫
	68	臨澧縣新合出土一批窖藏金銀器	湖南考古輯刊 2, 113~119	癸未季春(1283, 원대 초기~중기)	銀匙 10, 銀箸 2雙
	69	江蘇吳縣元墓清理簡報	文物, 1959-11, 19~24	大德8년(1304), 延祐3년(1315)	銀匙 2
元	70	江蘇無錫市元墓中出土一批文物	文物, 1964-12, 52~60	延祐7년(1320)	銀匙 2, 銀箸 2雙
	71	西安曲江池西村元墓清理簡報	文物, 1958-6, 57~61	至元2년(1336)	陶杓子 5
	72	介紹安徽合肥發現的元代金銀器皿	文物, 1957-2, 51~58	至順4년(1333) 전후	銀箸 55雙
	73	遼寧撫順土口子村元墓	考古, 1994-5, 478	13세기 말	銅匙 1
	74	內蒙昭盟赤峰三眼井元代壁畫墓	文物, 1982-1, 54~58	원대	宴飲圖의 燕尾形 杓子(壁畫)
	75	江蘇南京市明鄞國公康茂才墓	考古, 1999-10, 11~17	洪武3년(1370)	銀匙 1, 銀箸 1雙

Ⅲ. 수저(匙箸)의 編年과 特徵

앞서 수저가 출토되는 북송과 남송, 요, 금, 원의 유적 가운데 수저가 출토된 유적은 묘지나 목서명 등의 절대연대를 기준으로 선후를 따라 정리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서는 대체로 완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시기를 따라 각 유적에서 보이는 수저의 형태상 특징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하는 것으로 편년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北宋~南宋(960~1279) [표 2]

『考古』와 『文物』에 실린 송대의 분묘 가운데 10세기 중후반에 편년되는 분묘에서는 수저가 확인된 경우가 아직 없고 대부분 11세기 중반을 지나는 유적에서 확인된다. 당나라에서 무덤에 수저가 부장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당의 문화를 계승한 송에서도 일부 계층에서는 전통을 이어서 수저를 부장품으로 사용하였을 것인데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⁶²⁾ 아무래도 중국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심이 수저보다는 금은기나 도자기, 장신구에 우선하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오늘날 식탁에서 숟가락을 거의 거의 쓰지 않는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차후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자료로 보아 송대로 편년되는 수저 가운데 江蘇省 常州市紅梅新村의 黑檀箸 1쌍이 11세기 전반 경, 熙寧7년에 축조된 江蘇省 无錫興竹宋墓 출토의 은제 숟가락도 1)이 시기가 앞서는 것이다. 젓가락은 용도에 따라 길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으나 음식물을 집는다는 점에서는 재질을 막론하고 원주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단이 하단보다 두껍고 사각이나 육각등 각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숟가락의 형태는 송대를 지나 원대에 이르는 약 400년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지만 송대의 숟가락이 雲夢縣 罩子墩宋墓에서 출토되는 숟가락처럼 대개 唐代的 숟가락을⁶³⁾ 계승하는 경향에 비하면 홍족송묘의 은시는 그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12세기 초의 洛陽邙山宋代壁畫墓에서 출토된 숟가락도 2)은 12세기 초에 편년되는 것으로 숟가락의 자루가 끝으로 가면서 삼각형으로 넓어지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한 유물이다. 또한 江蘇省 常州北環新村宋墓는 宋 徽宗 政和年間에 축조된 것으로 여기에서 출토된 은시도 3)는 타원형의 술부에 만곡세장하는 자루의 끝이 능형으로 막혀 있어(鳳尾形) 송대 숟가락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合肥 馬紹庭夫妻合葬墓는 常州北環新村宋墓와 연대차가 거의 없는 것인데 숟가락이 漆器도 4)이어서 재질이 다르

62) 중국에서 수저가 출토된 유적의 보고문에 수저의 사진과 도면이 모두 실려 있지 않은 것은 유물을 모두 실건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수저연구에 상당한 핸디캡이 될 수밖에 없다.

6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河南第二工作隊, 『河南偃師幸園村的六座紀年唐墓』1987-5, 考古, 429~54

陝西省考古研究院·法門寺博物館·寶雞市文物局·扶風縣博物館編著, 『法門寺考古發掘報告』上·下, 陝西省考古研究院田野考古報告 第45號, 2007. 文物出版社, 136~137

東京國立博物館, 『宮廷の榮華 唐女帝·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1998~1999, 132

기는 하나 그 형태는 거의 동일하고 洛陽安樂宋代窖藏에서 출토된 은시도⁶⁵도 그 형태는 거의 다르지 않다. 이처럼 자루가 彎曲細長하고 자루의 끝이 넓어지면서 능형을 이루고 술부는 타원형을 띠는 것이 시기적으로 12세기 전반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아니면 낙양, 함비, 상주 등 비교적 근접하고 있고 북방으로부터 영향을 벗어난 지역적 장점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12세기 말에 축조된 張同之墓에서 출토된 2점의 순가락⁶⁶도 가운데 앞서 지적한 자루의 끝이 넓어지면서 능형을 이루고 술부는 타원형이라는 두가지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13세기 초로 편년되는 閩中縣窖藏에서는 111점이라는 가장 많은 양의 청동시도⁶⁷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식은 26점으로 만곡하는 자루와 봉미형 술총, 자루에 5조의 쌍철현문이 있는 것이고 2식은 86점으로 곡병에 자루의 단면이 원형이며 무문인 것이다. 결국 이들의 특징은 자루에 현철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 봉미만곡형의 자루에 타원형 술부를 가진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므로 송대 순가락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경향을 감안하면 송대 순가락의 징은 당대의 순가락에 비하여 자루의 끝 부분이 삼각형으로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저가 주로 출토되는 유적은 분묘나 교장을 들 수 있지만 불교유적인 탑의 기초 아래에서 나타난 지궁도 포함된다. 寧波天封塔地宮에서 출토된 순가락⁶⁸은 제작수법이 몹시 정교하고 길이 10cm, 술부의 너비는 2.7cm로 술부의 형태가 심엽형이며 자루의 끝은 능형으로 봉미형에 속한다. 순가락의 용처는 아마도 사리를 뜨는데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통일신라 감은사탑에서도 소형의 순가락과 집게가 출토된 예가 있다.⁶⁹ 한편 이 지궁은 북송말~남송초의 유적(12세기 전후반)에 속하는 것으로 遼重熙8년(1049)에 축조된 慶州白塔에서도 거의 같은 크기나 형태의 순가락이 출토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2. 遼(916~1125) [표 3]

요대 초기(10세기 전반)의 순가락은 建平遺蹟과 耶律羽墓에서 출토된 것이다. 먼저 建平張家營子墓 출토 순가락의 자루 끝이 넓어지고⁷⁰ 朱碌科 출토 은제 순가락에는 거란문자가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 耶律羽墓에서 출토된 은제 순가락⁷¹도 길이가 30.5cm로 앞선 순가락 길이 27cm보다는 길지만 전

⁶⁴ 國立中央博物館, 『感恩寺址發掘調查報告書』 國立博物館 特別調查報告 第二冊, 乙酉文化史, 1961. 79~80, 圖版 55

체적인 형태는 다르지 않다. 11세기 초·중반의 遼陳國公主駙馬合葬墓는 수저의 형태변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진국공주묘에서는 모두 3점의 순가락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2점은 금도금한 것이다. 보고자의 설명에 따르면 금도금한 것 중의 1점은 자루의 끝에 쌍어를 새겼고 꼬리가 서로 마주 보는 지점에 圓孔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은제 순가락 1점의 자루 끝은 오리의 물칼퀴 형태를 보인다고 하였다.[도 11] 이러한 묘사는 자루의 끝이 넓게 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셈인데 12세기 송나라 순가락의 변화 가운데 하나도 자루의 끝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은 순가락의 형태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요대를 대표하는 분묘유적으로 河北 宣化遼墓가 있는데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전반 즉 요대 말기까지 걸쳐 조성된 것이다. M2호(張恭誘墓, 遼天慶7年, 1117)에서는 동제 수저[도 12, 요-38a], M3호(張世本夫婦墓, 遼大安9年, 1093)에서는 칠시와 칠저[도 12, 요38-b], M6에서는 전실 동벽의 備茶圖에 수저[도 13]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M7호(張文藻墓, 遼大安9年, 1093)에는 칠시와 칠저[도 14]가 출토되었다. 묘지에 의하면 M2호는 요대 말기에 속하고 M3호는 요대 말기에서 금대 초기에 해당하는데 M2호는 동제수저가 부장되어 있고 M3호에는 칠기로 제작한 수저가 부장되어 있다. 게다가 순가락의 형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술부는 청동으로 만든 것과 나무로 만든 것의 차이로 본다고 하여도 자루의 끝은 하나는 뾰족한 능형이지만 다른 하나는 자루 끝에 화판을 새겨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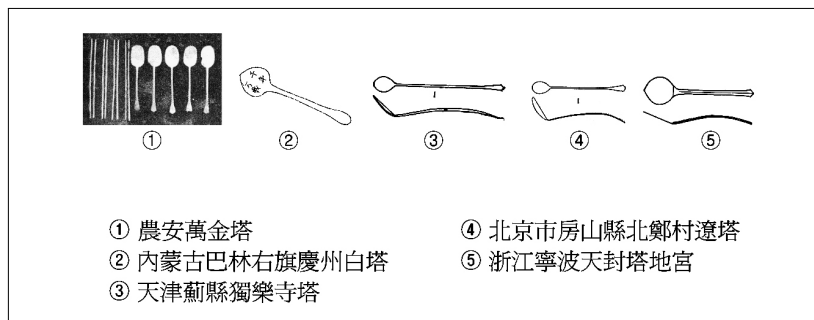
화판의 여부는 차치하고 자루의 끝으로 가면서 넓어지는 형태가 2단으로 나누어 전개되고 있는 점은 연미형 순가락의 전단계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요대 말기에 축조된 宣化遼墓 M1호(張世卿墓, 遼天慶6年, 1116년) 벽화에 보이는 연미형 순가락과 연미형 탕표[도 16], 그리고 M5호(張世古墓, 遼天慶7年, 1117년) 벽화에 공존하는 봉미형 칠표자와 연미형표자[도 17]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순가락 자루의 끝이 넓어지는 경향은 물론 일반적이지는 아니어서 건평서요촌 출토 칠기 순가락의 자루처럼 만곡하지만 넓이는 거의 변화가 없는 예도 있다.

한편 요대 만기의 유적 가운데 濯鹿縣壁畫墓에서 출토된 순가락 2점[도 15]과 黑龍江省 肇東縣 蛤蜊城古墓에서 출토된 순가락 1점[도 18] 등은 타원형의 술부를 유지하면서 자루 끝이 넓어지는 변화를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요는 건국초기부터 농경민을 통치하기 위하여 불교를 수용하여 불교문화를 크게 발달시켰지만 특히 聖宗(982~1031)과 興宗(1031~1055), 道

宗(1055~1101)의 3대에 걸쳐 크게 융성하였다.⁶⁵⁾ 요황실은 수많은 사탑을 건립하며 불교의 보급에 앞장섰는데 그런 배경에서인지 수저가 출토되는 불교유적은 송에 비하여 훨씬 많다. 農安萬金塔基, 慶州白塔, 房山北鄭村遼塔, 薊縣獨樂寺塔, 易縣淨覺寺舍利塔地宮 등 5건에 이르고 시기는 11세기 초반(1021)부터 12세기 초(1116)까지 100년에 걸쳐 있어 수저의 형태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萬金塔基에서는 청동순가락 5점과 젓가락 8점이 출토되었는데 순가락도 19)의 길이는 13.5cm이고 술부는 타원형에 자루의 끝이 넓다. 慶州白塔 출토 은제 순가락도 20)의 길이는 9cm, 너비 2.2cm이고 술부는 심엽형에 자루의 끝은 점점 넓어진다. 北鄭村遼塔 출토 동제 순가락도 21)은 길이 15.6cm, 薊縣獨樂寺 출토 은제 순가락은 길이 16.8cm, 자루는 세장하며 끝은 능형으로 뾰족하다. [도 22] 그리고 12세기 초 淨覺寺 舍利塔地宮에서 출토된 은제 순가락도 23)은 형태가 계현독락사에서 출토된 순가락과 유사한데 길이 17.1cm, 자루는 세장하며 끝은 역시 능형으로 뾰족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만금탑에서 출토된 순가락은 일반적인 찬구로서의 형태와 다르지 않은데 나머지 4점은 사리탑과 관련하여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앞서 지적하였다시피 경주백담과 천봉탑지궁에서 출토된 순가락의 형태가 유사하고 북정촌요탑과 독락사, 그리고 정각사에서 출토된 순가락의 형태가 유사한 것은 순가락이 일반적인 찬구가 아니라 불교 의식구[삽도 1]로서 따로 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도 일정한 형식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삽도 1] 불교의식구로서의 수저 출토 예



65) 李錫厚·白濱, 『遼金西夏史』中國斷代史系列 2003, 上海人民出版社, 407~411
 배진달, 『중국의 불상』2005, 일지사, 365~373

3. 金(1115~1234) [표 4]

금나라의 유적 가운데 수저가 출토되는 유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왕조의 존속기간이 앞선 송이나 요에 비하여 120년간으로 짧은 탓도 있겠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요보다 젓가락을 많이 사용한 한족의 문화에 경도된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먼저 吉林東遼縣의 황토층에서 발견된 동제 숟가락도 24)은 소위 연미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체 길이 24.3cm, 유엽형의 술부에 자루가 끝으로 가면서 2단에 걸쳐 확장되고 끝은 좌우로 갈라져 있다. 보고자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燕尾形」이라는 용어 대신 「魚尾形」이라고 하였다.⁶⁶⁾ 보고자가 사용한 연미형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자루의 끝이 갈라진 형태를 연미형으로 본 결과이며 이와 같은 관점은 遼陽 北園金墓에 출토된 연미형의 청동 숟가락도 25)을 보고자는 「雁尾式柄」이라고 하였다.⁶⁷⁾

한편 蒲峪路故城에서는 골제 숟가락도 26)이 한 점 발견되었는데 완형은 아니고 술부의 형태는 타원형이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자료는 聞喜寺 寺底村에서 발굴된 금대 벽화묘에 그려진 湯杓도 27)의 형태이다. 이 벽화묘는 금대 중기 후반(12세기 말)에 속하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묘실 사벽과 천정사면에 모두 회화가 남아 있다. 그 중 北壁 磚雕 卓子 위에 화초와 탕분, 탕표, 포자, 석류, 복숭아, 배 등을 그렸다. 남녀가 탁자를 중심으로 마주 앉아 탁자 위에 탕분을 놓고 탕표는 탕분에 담겨 있는데 탕표의 술부는 거의 타원형으로 보이고 탕표 꼬리의 끝은 둘로 갈라진 연미형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연미형 숟가락의 등장은 북송과 남송, 그리고 요에서 보이던 숟가락 자루가 넓어지는 경향이 금대에 이르러 또 다른 형식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元(1271~1368)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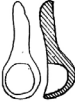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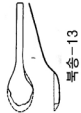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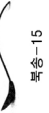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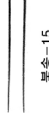






금대에 연미형 숟가락이 등장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이 연미형 숟가락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13세기 말 臨澧縣 新舍의 窖藏遺物 가운데 출토된 은제 숟가락 12점은 1식(31cm)와 2식(29cm)로 나누어지고 1식의 술부는 타원형에 약간 오목한데 자루의 끝은 약간 넓어져 뾰족한 삼각형을 이룬다고도 28) 하여 앞선 송·요의 숟가락 형태와 다를 것이 없다.⁶⁸⁾ 그리고 1320년 無錫市 元墓에

⁶⁶⁾ 전계 주45. 考古. 2001-10, 95~96

⁶⁷⁾ 전계 주46. 文物. 1977-12, 90~92

⁶⁸⁾ 길이 29cm의 2식을 일종의 蟹殼形이라고 하였는데 자세한 설명이나 도면, 사진이 누락되어 있어 어떤 형태인지 잘 알 수 없다. 술부의 크기가 길이 6cm, 너비 9cm라고 하였으니 杓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표2] 宋代匙箸編年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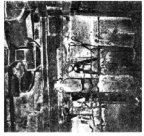














시 대	10C	11C	12C	13C	14C
宋	 <p>복송-1</p>	 <p>복송-3</p>  <p>복송-5</p>	 <p>복송-10</p>  <p>복송-12</p>  <p>복송-13</p>  <p>복송-14</p>  <p>복송-15</p>  <p>복송-16</p>  <p>복송-17</p>  <p>복송-18</p>  <p>복송-11</p>	 <p>복송-20</p>  <p>복송-21</p>  <p>복송-22</p> <p>浙江衢州市胡前山村(1258)</p>	

- 도판의 번호는 [표1]의 유적번호와 동일(축척부동)

[E3] 遼代 匙箸編年表

시 대	10C	11C	12C	13C	14C
遼	<p>요-28 北京南郊琉璃廠鈞臺 요-29 요-30 요-31 요-32 요-33 요-36 요-50 요-64</p>	<p>요-34 요-35 요-37 요-38 요-39 요-40 요-41 요-42 요-43 요-44 요-45 요-46 요-47</p>			

-도판의 번호는 [표1]의 유적번호와 동일(축척부등)

시 대	10C	11C	12C	13C	14C
金		 呂-67a  呂-67b	 呂-58  呂-59  呂-60  呂-63  呂-64 遼寧遼陽三道溝 北京市通縣金代墓(1177)		
元				 元-68  元-70  元-73  元-74 遼寧沈陽小南門	 元-69  元-71  元-71  元-72  元-75

-도판의 번호는 [표1]의 유적번호와 동일(색적부동)

서 출토된 숟가락은 자루가 편평하거나 휘어진 차이는 있지만 연미형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江蘇 吳縣元墓 출토 숟가락도 29의 자루는 끝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西安 曲江池村元墓에서 출토된 螭首魚身長柄杓도 30의 자루는 명칭이 말해주듯 생선의 꼬리를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遼寧省 撫順土口子村元墓도 31와 遼陽小南門 출토 숟가락도 32의 자루는 연미형이 분명하고 安徽合肥 교장에서 출토된 花口銀杓의 자루도 33도 연미형이며 赤峰三眼井元代壁畫 宴飲圖도 34에 나타난 湯杓도 연미형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금대에 하나의 형식으로 완성된 연미형은 원대에도 이어져 숟가락과 국자의 자루에 적용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IV. 어미형 숟가락의 출현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를 중심으로 수저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숟가락의 출토 양상이나 형태의 변화를 참고하여 앞으로 수저연구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과 차후의 연구방향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수저가 출토되는 유적은 상당히 희귀한 편으로 앞선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송대 3%, 요대 11%, 금대 3%, 원대 7%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유목민족이 세운 요대의 숟가락 출토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숟가락 사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통계치라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숟가락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를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숟가락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도 우리나라도 북방문화권이라는 동질성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표 1]에서 보다시피 송나라의 숟가락은 출토되는 예도 드물지만 대부분 은으로 제작되어 숟가락이 상당히 귀한 식도구이며 그 사용계층도 한정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동제 숟가락이 주류를 이루는 금을 제외하고 요와 원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 숟가락이 상대적으로 귀한 식도구였으며 은제 숟가락은 한층 보기 드문 식도구였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송대 전반과 요대를 걸친 숟가락의 변화, 그리고 연미형숟가락의 등장시기와 연미형에 포함된 길상적 의미를 중심으로 숟가락의 형태변화와 그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송대의 숟가락의 형태는 당대의 숟가락 전통을

이어받아 큰 변화 없이 이어지는 양상이었으나 점차 숟가락의 자루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루의 끝이 삼각형을 띠면서 넓어지는 것은 우선 힘을 더 줄 수 있는 장점과 숟가락을 잡기가 더 용이하게 되는 기능적인 발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지금 필자의 능력으로서 헤아리기는 어렵다. 다만 송대는 중국음식문화에 있어 물산이 풍부하여 음식 재료에 변화가 일어나고 가공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변성기로 볼 수 있어서 따라서 숟가락을 사용하여 떠오르는 음식물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⁶⁹⁾

한편 같은 시기에 북방의 요나라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요녕성 건평 출토 숟가락에 오리 물갈퀴형 자루^{도 9)}가 나타나는 것은⁷⁰⁾ 송에서 숟가락의 자루가 넓어지면서 생겨나는 경향은 자루의 끝이 넓어지는 것과 일부 유사하기도 하다. 즉 張文藻墓 출토 漆匙^{나도 14)} 涿鹿縣遼代壁畫墓에서 출토된 동시^{도 15b)} 또한 자루의 끝이 삼각형으로 넓어지는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 진국공주묘(開泰7年, 1018) 출토 숟가락과 河北宣化下八里M3 출토 칠시는 북송이나 남송의 숟가락 자루의 변화와는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진국공주묘 출토된 숟가락은 도금 은숟가락으로 길이가 28cm이며 숟가락 자루는 죽절문을 새기고 끝에는 雙魚를 새긴 것이 2점 출토되었다.⁷¹⁾ ^{도 11)} 또한 河北宣化下八里M3호에서 출토된 칠시는 자루의 끝이 2단계에 걸쳐 넓어지고 술부가 유엽형으로 변화하는 것은 북방 숟가락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생각된다.^{도 12b)}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遼末金初의 宣化遼墓 M1호(1116년) 벽화에 보이는 연미형 숟가락과 연미형 陶匙^{도 16)}, 그리고 M5호(1117년) 벽화에 공존하는 봉미형 칠표자와 연미형표자^{도 17)}는 본격적인 금대의 연미형 숟가락과 표자로 이어진다.

금대에 이르러 吉林 東遼縣^{도 24)}이나 遼陽에서 출토된 숟가락^{도 25)}은 송대의 숟가락에서 자루의 끝이 넓어져 삼각형을 이루는 것과는 달리 자루가 끝으로 가면서 2단에 걸쳐 넓어지면서 좌우로 갈라진 형태이다. 이처럼 요대 말기에 등장한 연미형은 금대에 이르러 하나의 형식으로 정착되어 聞喜縣 寺底村의 磚雕壁畫墓에서도 陶匙의 꼬리가 좌우로 갈라진 연미형으로 표현되게 되고^{도 27)} 원대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요대 말 연미형숟가락과 표자는 금대에 들어서면서 숟가락 자루의

69) 徐海榮 主編, 1999, 『第九編 宋代的飲食』 『中國飲食史』卷四, 華夏出版社, 北京, 4~167

70) 전계 주 27. 文物. 1984-7. 82~84, 전계 주 29. 文物. 1987-11. 4~24

71) 中國歷史博物館·內蒙古自治區文化廳 『內蒙古遼代文物精華 契丹王朝』 2002, 中國藏學出版社.

끝이 좌우로 갈라지는 소위 연미형이 보다 넓게 유행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시한 필자의 송~원 수저 편년안을 기준으로 하면 소위 본격적인 연미형의 출현은 遼 天慶年間(1111~1120) 즉 요말금초에 해당된다. 아직 요대 말의 연미형 순가락 실물이 출토된 것은 아니지만 벽화에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연미형 순가락은 요대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출토된 자료로 보아 쌍어문을 새긴 순가락이 처음으로 나타난 곳은 내몽고 자치구였고 연미형 순가락의 완성된 형태가 나타난 곳은 하북성 장가구시이다. 이와 같이 연미형순가락의 출토지역은 북방민족국가인 요와 금의 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므로 연미형 순가락은 북방민족 특유의 순가락 형식으로 볼 수 있고 순가락에 대한 그들만의 사상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⁷²⁾

여기서 연미형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연미형이라는 용어는 이난영의 논문에서 『長陵型式』과 함께 등장한 용어로 순가락 자루의 끝이 좌우로 갈라져 제비의 꼬리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⁷³⁾ 그러나 순가락과 제비와의 관련성은 사실 입증하기가 전혀 쉽지 않다. 필자는 오히려 요대에 출현한 遼 陳國公主墓의 雙魚文이 부가된 순가락 자루의 형태에 주목하고자 한다. 보고자에 따르면 鑲金銀匙는 2점이 출토되었는데 대소의 차이는 있어도 완전히 같은 형태의 것으로 술부는 편평타원형이며 자루는 세장한데 뒤로 갈수록 만곡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루에는 쌍어를 새겼는데 눈과 꼬리, 비늘이 선명하며 쌍어의 꼬리부분에는 원공이 있다고도 11a) 하였다.⁷⁴⁾ 이와 같이 진국 공주묘 쌍어문순가락은 도금한 은순가락으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호화롭게 제작된 최고 수준의 순가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루에 새겨진 쌍어문은 생선의 몸체를 새기면서 일단계가 넓어지고 꼬리를 새기면서 다시 한번 넓어지는 형태이다. 이처럼 쌍어를 표현하기 위하여 2단에 걸쳐 자루가 넓어지는 것이 河北宣化下八里 출토 漆匙이고 다음 단계로 형식화되면서 나타나는 예가 선화요묘 M1호(1116년) 벽화에 보이는 연미형 순가락과 M5호(1117년) 벽화의 연미형표자이고 이어서 길림성 동요현과 요양시에서 출토된 금대의 연미형 순가락으로 보는 것이 필자의 생각인 것이다.[삽도 2]

그런데 어문은 공예품에서 주로 쌍어로 나타나며 이는 雌雄을 반영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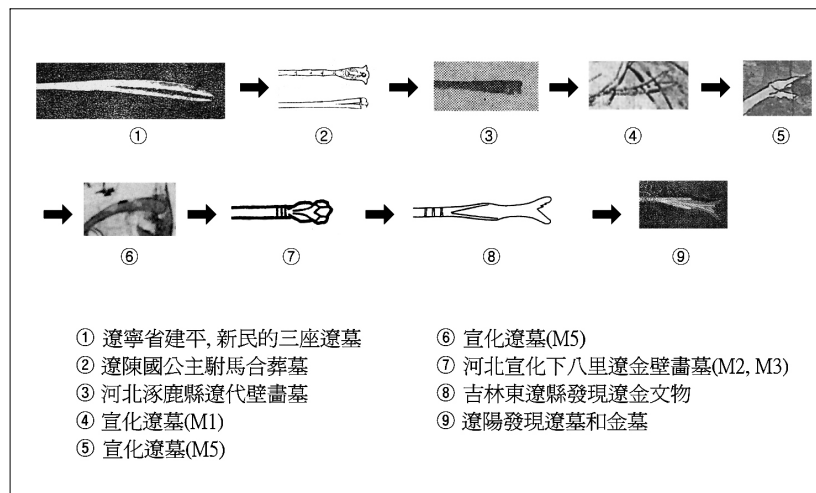
72) 안귀숙은 유연형 술부와 연미형 손잡이를 한 전형적인 고려동시는 금대에 요녕성에서 완성되어 고려에 전파된 것으로 보았다.(안귀숙, 『高麗時代 金屬工藝의 對中 交涉』 『高麗 美術의 對外 交涉』2004, 예경. 170~171)

73) 李蘭瑛, 『고려시대의 순가락』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1992. 일지사. 117~137

74)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哲里木盟博物館, 『遼晉國公主墓』1993, 文物出版社. 43~44

것으로 볼 때 夫婦融合과 和睦을 상징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子孫繁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생각하자면 음양의 상징으로서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쌍어는 융합과 평화를 상징하며 현실적인 면에서는 榮華와 富貴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⁷⁵⁾ 또한 고려의 雙魚蓮花文鏡 중에 연화문이 생략되고 「子厚」銘이 있는 형식이 있다.[도 40] 자후는 길상과 자손융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쌍어문 본래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⁷⁶⁾ 생각해 보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가족의 융합과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러한 염원을 상징하는 쌍어문을 숟가락 자루에 새겨 넣은 것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삽도 2] 어미형 숟가락 변천



송대에서 원대에 이르기까지 雙魚文이 많이 채용된 공예품으로서 쌍어문 경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금대에 이르러 쌍어문경이 매우 유행하였으며[도 41] 금대 후반에 가면 도식화된 변형 문양이 출현한다고 한다.⁷⁷⁾ 실제로 쌍어문은 耶律羽墓(會同4년, 941)에서出土된 圓口花腹金杯[도 42], 五瓣花口金杯의 雙魚紋, 魚形盒玉佩, 魚形盒琥珀佩[도 43], 陳國公主墓(開泰7년, 1018)出土의

75) 황정숙, 『高麗中·後期 思想을 통해 본 銅鏡文樣의 象徵性 研究』2006,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73~177

76) 李蘭瑛, 『高麗鏡研究』2003, 도서출판 신유. 173~177

77) 孔星祥·劉一曼, 『中國銅鏡圖典』1992, 文物出版社. 815~822

孔星祥·劉一曼 著 安京淑 譯 『中國古代銅鏡』2003, 圖書出版 周留城. 385~389

雙魚玉佩^{도 44}, 魚形玉佩^{도 45}, 喀喇沁旗官家營子鄉吉旺營子(916~1125) 出土의 魚形水晶佩^{도 46} 등으로 보아 요대의 어문 또는 쌍어문은 조기에서 말기까지 전기간에 걸쳐 확인된다.⁷⁸⁾ 요대의 쌍어문은 容器나 裝飾物에 그치지 않고 손가락 자루에까지 새겨지게 되는데 이를 보다 간략화하여 손가락 자루에 나타난 것이 지금 우리가 연미형으로 부르는 것이며 요대 말에 등장한 연미형 손가락은 금대 초에 이르러 쌍어문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자 더욱 더 널리 유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이 「연미형」이라는 용어는 「鴨蹠形-오리 물갈퀴형」이나 「雁尾形-기러기꼬리형」처럼 좌우로 갈라진 손가락 자루의 형태만을 두고 붙여진 용어이며 어떤 학술적인 근거에서 붙여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자루의 끝이 좌우로 갈라진 것이 쌍어문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면 「燕尾形」, 「鴨蹠形」 또는 「雁尾形」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雙魚의 象徵性과 形態를 아우르는 「魚尾形」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魚尾形」보다 「雙魚形」이고 부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되지만 종래의 손가락을 「鳳尾形」이라고 불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전체 명칭을 통일하는 뜻에서 「魚尾形」이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魚尾形」이라는 用語가 적합하다는 것은 금대 聞喜寺底村의 벽화, 河北井陘縣栢庄金代 壁畫墓 賞樂圖⁷⁹⁾에서 나타난 唐표의 자루^{도 35}, 元代 西安 曲江池村 출토 螭首魚身長柄杓^{도 30}, 合肥 출토 銀杓子의 자루^{도 33}, 赤峰縣 三眼井 宴飲圖^{도 34}에 그려진 국자의 자루가 좌우로 나누어져 표현되어 있어 魚尾를 그대로 象徵化하여 표현한 것으로 입증된다고 하겠다.

이로서 필자는 연미형-어미형(이하 어미형) 손가락에 대하여 품었던 形態와 登場時期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한 모퉁이나마 풀었다고 생각되는 한편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가지 지적해 둘 것은 쌍어문을 손가락 자루에 새기던 요대 이래의 전통이 금대에 이르러 정착된 어미형 손가락은 북송과 남송의 유적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미형 손가락은 북방 居란족과 여진족의 특징적인 기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전래되어 고려시대 분묘에서 출토되는 어미형 손가락과 봉미형 손가락을 북방계(요·금계)와 남방계(북송·남송계)로 나눌 수 있는지 또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인지, 그리고 조선시대 전기 분묘에서 출토되는 어미형

⁷⁸⁾전계 주71, 148~317

⁷⁹⁾孟繁峰, 『井陘栢庄金代壁畫墓』, 『河北古代墓葬壁畫』河北省文物研究所編, 2000, 文物出版社. 圖

순가락은 또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아직 필자로서는 결론내기가 쉽지 않다.⁸⁰⁾ 한편으로 고려시대 분묘에서 출토되는 어미형 순가락의 편년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고려시대 순가락에 대한 글에서 고려무덤에 발견되는 연미형 순가락은 13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난영의 논문에 따르면 13세기 중반에 사망한 양택춘의 묘에서 연미형 순가락이 출토되었다고 한다.⁸¹⁾ 그런데 요가 멸망한 이후에도 금과 고려의 교류가 간단없이 이어지고 있었고⁸²⁾ 자기나 동경 등은 별 다른 시차 없이 수입되고 있었는데 요대말 즉 12세기 전반에 이미 등장한 어미형 순가락만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차를 두고 전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철제가위에 관한 것인데 필자는 고려시대의 가위에 관한 연구에서 한 줄의 철봉을 다듬어서로 교차하게 하여 제작한 가위를 「8」자형 가위, 2개의 날을 만들어 못을 박아 X자로 교차시킨 가위를 「X」자형 가위라고 분류하였다. 그런데 고려분묘에서 출토되는 「X」자형 가위의 부장시기는 13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것으로 보았고⁸³⁾ 실제 발굴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연구성과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⁸⁴⁾

그런데 어미형 순가락은 이미 지적하였다시피 중국측 자료를 살펴보면 12세기 전반에는 이미 나타나고 「X」자형 가위도 11세기 후반 또는 12세기 초반이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北京 懷柔上庄村의 요대 유적에서는

80) 이것은 동일묘군 내에서 봉미형과 어미형순가락이 같이 출토되는 예가 있기도 하고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 또는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81) 鄭義道, 2007 『韓國古代青銅匙箸研究-高麗時代-』 『石堂論叢』第38輯, 東亞大學校 石堂學術院 93~108.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에 大定12년(1172)에 출생하여 甲寅年(고종41년, 1254)에 82세로 사망한 梁宅椿墓-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에서 출토된 어미형 순가락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이 순가락은 피장자의 사망기기를 고려하면 적어도 13세기 전반경에는 편년되는 유물로서 우리나라 어미형 순가락 중에서는 가장 시기가 앞서는 것으로 판단된다.(전체 주 70. 이난영 『고려시대의 순가락』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1992. 일지사. 125~128, 국립중앙박물관 『다시 보는 역사편지 高麗墓誌銘』 2006, 86~87,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제3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자료총서10,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385~386)

82) 朴漢男, 「거란 및 금과의 통교」 『한국사』15. 고려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3. 344~367, 김한규 『한중관계사 I』 대우학술총서논저422, 2002, 아르케. 491~500, 장동익,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 동북아역사자료총서16, 동북아역사재단, 2009, 116~163. 고려는 금에 황제의 즉위와 생일 등에 사신을 빠짐없이 보냈고 금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83) 鄭義道, 『高麗時代 鐵製가위研究』 『慶文論叢』2007, 創刊號. 273~328

84) 강경숙, 「단양현곡리고분출토 도자기」 『丹陽玄谷里 高麗古墳群』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학술총서 제4집,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한국도로공사. 2008. 255~266

『8』자형가위[도 36], 房山縣焦庄村遺蹟과 북경시 通縣金代墓에서는 『X』자형 가위가 출토되고 있어[도 37] 『X』자형가위는 금대에 유행하기 시작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⁸⁵⁾ 그리고 武峽鎮秀峰村宋墓와 河南方城鹽店庄村宋墓에서도 『X』자형가위가 출토되어[도 38] 북송 말기(12세기 초)에 이르면 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河北井陘栝庄 北孤臺墓區 金墓4號의 동벽 남측벽에는 『8』자형가위와 『X』자형가위가 동시에 그려져[도 39] 있어⁸⁶⁾ 두 형식의 가위 사용 시기는 겹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분명한 자료가 되는데 축조시기는 金 天會年間(1123~1137)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X』자형가위의 출현시기는 북송 말 금대초인 12세기 초반경으로 보아도 별다른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상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遼代末-적어도 12세기 전반경에는 등장하는 어미형순가락이나 『X』자형 가위가 어찌서 고려에서는 13세기 전반경이 지나서야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시 고려와 중국간의 교류에 있어 일시적인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아직 본격적인 자료들이 출토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100년이라는 세월을 쉽게 메울 수 없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심정이다. 그리고 필자의 편년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아직은 이 간극을 메울 자료나 근거가 없어 차후 연구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송~원대의 순가락이 순가락이 출토된 유적을 중심으로 편년을 시도하여 보았고 순가락의 변천과정을 서술하면서 요대 말에서 금대초에 등장한 어미형순가락의 의미와 등장배경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리고 어미형 순가락이 전통적인 순가락보다는 뒤에 유행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출현지역을 근거로 북방계라고 하였을 때 앞선 봉미형순가락을 사용하는 집단 또는 계층이 존재하는지 의문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어미형 순가락과 『X』자형 가위가 중국에서는 북송말, 늦어도 금대 초에 등장하는데 고려에서는 분묘에서 출토되는 어미형순가락이 13세기 전반 경, 『X』자형가위가 13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것을 밝혀 약 100년간의 시기차가 있음을 지적해 두었다. 이러한 시기 차이가 당시 고려와 중국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자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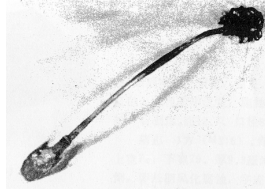
⁸⁵⁾ 北京市文物工作隊「北京出土的遼金時代鐵器」『考古』1963-3, 140~144

⁸⁶⁾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河北井陘縣栝庄宋墓發掘報告」1962-29, 考古學報, 3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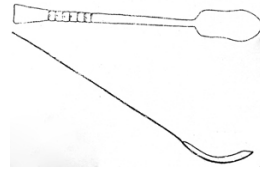
불비한 탓인지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장황한 글의 끝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를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면서 이번 글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수저에 관한 글을 쓴다고 하였으나 이번에도 젓가락에 대한 정리를 하지 못하였다. 숟가락의 변화에만 급급하고 젓가락은 단순하다고 置簿하여 생기는 단순한 偏見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다음 글에서는 일단의 생각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魚尾形 숟가락의 술부는 柳葉形이고 鳳尾形 숟가락의 술부는 橢圓形으로 제작되는데 이를 사용하는 集團 또는 階層의 區別이 가능한 것인지, 製作에 있어 분명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밝혀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 재료의 종류, 분묘에서 숟가락의 출토위치, 부장합장묘에서 나타나는 남녀묘를 구별하는 부장품의 차이와 숟가락과 젓가락의 형태와 재료의 차이, 숟가락이 3개가 부장되었을 때 숟가락 용도의 차이, 숟가락 크기 변화, 그리고 일반적인 餐具로서의 숟가락과 儀式用具로서의 숟가락의 구분 등이 차후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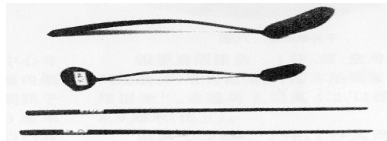
■ 투고일 2010년 1월 4일 | 심사완료일 2010년 2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10일 ■



도 1. 江蘇无錫興竹宋墓



도 2. 洛陽邙山宋代壁畫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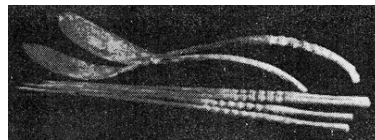
도 3. 江蘇常州北環新村宋木槨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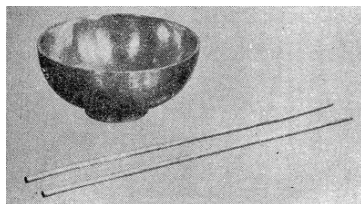
도 4. 合肥北宋馬紹庭夫妻合葬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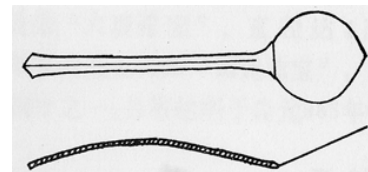
도 5. 洛陽安樂宋代窖藏瓷器



도 7. 四川閬中縣出土宋代窖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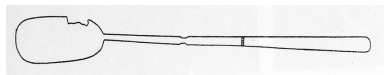
도 6. 江浦黃悅嶺南宋張同之夫婦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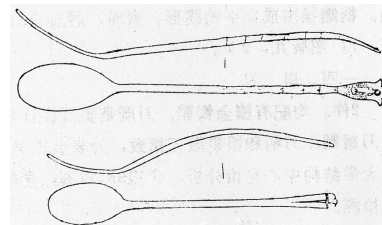
도 8. 浙江寧波天封塔地宮



도 9. 寧省建平, 新民的三座遼墓



도 10. 遼耶律羽之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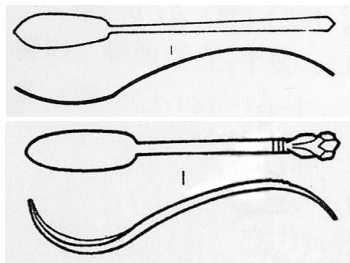
도 11. 遼陳國公主駙馬合葬墓(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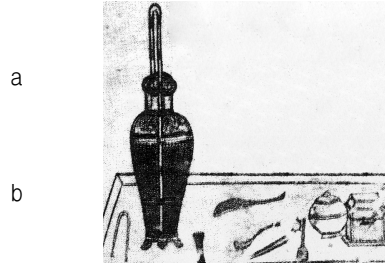
도 11. 遼陳國公主駙馬合葬墓(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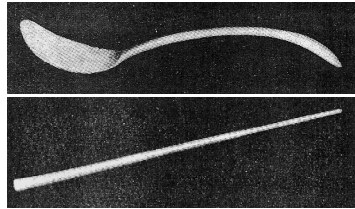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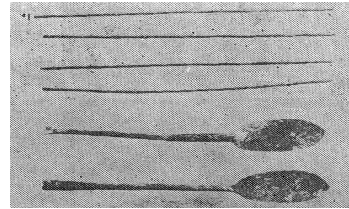
도 12. 河北宣化下八里遼金壁畫墓 (M2, M3)



도 13. 河北宣化遼代壁畫墓 (M6)



도 14. 河北宣化遼張文藻壁畫墓 (M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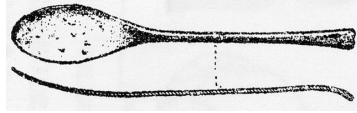
도 15. 河北涿鹿縣遼代壁畫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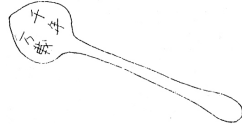
도 16. 宣化遼墓 M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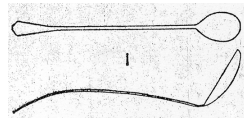
도 17. 宣化遼墓 M5



도 18. 黑龍江肇東縣蛤蜊城古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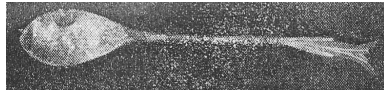
도 20. 內蒙古巴林右旗慶州白塔



도 21. 天津薊縣獨樂寺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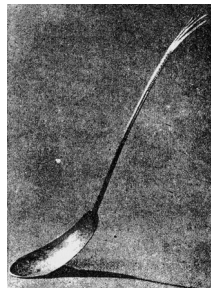
도 23. 河北易縣淨覺寺舍利塔地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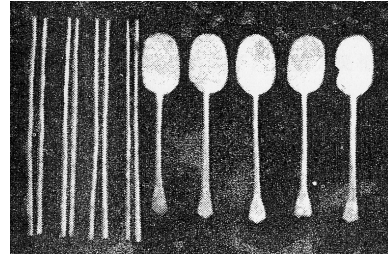
도 25. 遼陽金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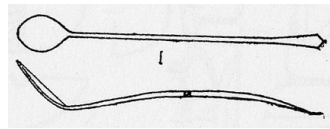
도 27. 山西閻喜寺底金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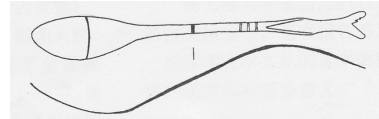
도 29. 江蘇吳縣元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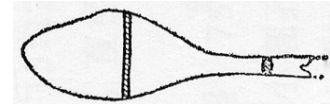
도 19. 農安萬金塔墓



도 22. 北京市房山縣北鄭村遼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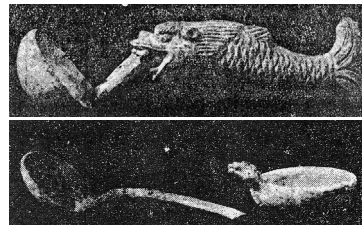
도 24. 吉林東遼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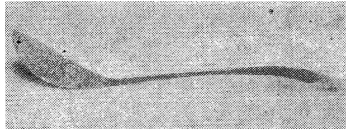
도 26. 黑龍江克東縣金代蒲峪路故城



도 28. 臨澧縣新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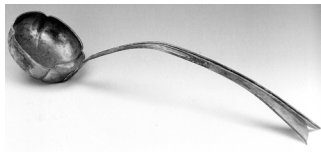
도 30. 西安曲江池西村元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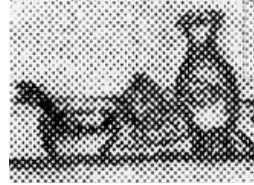
도 31. 遼寧撫順土口子村元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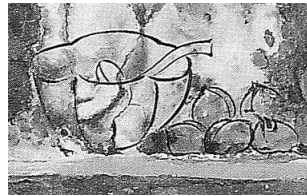
도 32. 遼寧沈陽小南門



도 33. 安徽合肥



도 34. 內蒙昭盟赤峰三眼井元代壁畫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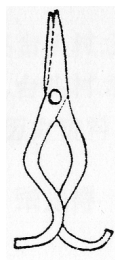
도 35. 河北井陘縣栲栳庄宋墓



도 36. 懷柔上庄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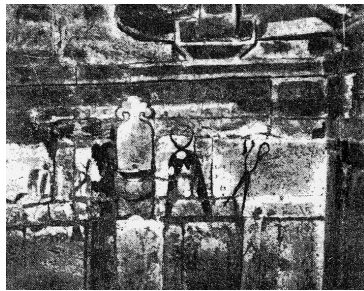
도 37-1
房山縣焦庄村遺蹟



도 37-2
北京市 通縣金代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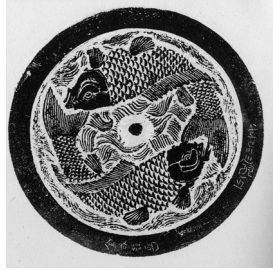
도 38.
河南方城鹽店庄村宋墓



도 39. 河北井陘縣栲栳庄宋墓



도 40. 雙魚文(子厚)鏡
(平南 江東郡 鳳津面 漢王里 出土)



도 41-1. 金代 雙魚文鏡 ①



도 41-2. 金代 雙魚文鏡②



도 42. 耶律羽墓(會同4年, 941) 出土
圓口花腹金杯



도42. <雙魚文> 세부



도 43. 陳國公主墓(開泰7年, 1018) 出土
魚形盒琥珀佩



도 44. 陳國公主墓(開泰7年, 1018)
出土 雙魚玉佩



도 45. 陳國公主墓(開泰7年, 1018) 出土
魚形玉佩



도 46. 喀喇沁旗官家營子鄉吉旺營子
(916~1125) 出土 魚形水晶佩

參考文獻

資料

- 『考古』, 1955년~2004년,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主辦 科學出版社
出版
- 『文物』, 1950년~2004년, 文物編輯委員會
- 『考古學報』, 1936년~1984년,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 『中國考古集成』, 華北卷, 河南省·山東省 22. 宋元明清 東亞文庫. 中洲
古籍出版社
- 『中國考古集成』, 華北卷, 北京市·天津市·河北省·山西省 15·16 宋~
遼, 17·18 金~元 東亞文庫 哈爾濱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 主辦·譚其驤 主編, 1996, 『中國歷史地圖集-宋·遼·
金時期』第6冊, 『中國歷史地圖集-元·明時期』第7冊, 中國地圖出
版社出版

論著

- 李蘭瑛,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 1992. 일지사.
- 李蘭瑛, 『高麗鏡研究』 2003, 도서출판 신유.
- 배진달, 『중국의 불상』 2005, 일지사.
- 朴漢男, 『거란 및 금과의 통교』 『한국사』15. 고려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2003,
국사편찬위원회.
- 김한규, 『한중관계사 I』 대우학술총서논저422, 2002, 아르케.
-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제3권,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자료총
서10, 200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장동익,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 동북아역사자료총서16, 2009, 동
북아역사재단.
- 韓國美術史學會, 『高麗美術의 對外交涉』 제8회 전국미술사학대회, 2004,
예경
- 황정숙, 『高麗中·後期 思想을 통해 본 銅鏡文樣의 象徴性 研究』 2006, 대
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姜敬淑, 『단양현곡리고분출토 도자기』 『丹陽玄谷里 高麗古墳群』 서울시립대
학교 박물관학술총서 제4집, 2008,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한국도로공사.
- 안귀숙, 『高麗時代 金屬工藝의 對中 交涉』 『高麗 美術의 對外 交涉』韓國

美術史學會, 2004, 예경.

鄭義道, 『韓國古代青銅匙箸研究-高麗時代-』, 『石堂論叢』第 38輯, 2007, 東亞大學校 石堂學術院

_____, 『高麗時代 鐵製가위(鐵鋏)研究』, 『慶文論叢』創刊號, 2007, 慶南文化財研究院

_____, 『宋·遼·金·元墓 匙箸 및 鐵鋏 出土傾向-高麗墓 副葬品과 關聯하여-』, 『文物研究』第15號, 2009, 財團法人 東아시아文物研究學術財團

徐海榮 主編 『中國飲食史』 卷四, 1999, 華夏出版社, 北京.

河北省文物研究所編 『河北古代墓葬壁畫』 2000, 文物出版社

孔星祥·劉一曼 『中國銅鏡圖典』 1992, 文物出版社.

孔星祥·劉一曼著 安京淑譯 『中國古代銅鏡』 2003, 圖書出版 周留城.

李錫厚·白濱 『遼金西夏史』 中國斷代史系列 2003, 上海人民出版社.

劉雲 『中國箸文化大觀』 1996, 科學出版社.

劉雲 『中國箸文化史』 2006, 中華書局

報告書·圖錄

『丹陽玄谷里 高麗古墳群』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학술총서 제4집, 2008, 서울 시립대학교 박물관·한국도로공사.

內蒙古自治區 文物考古研究所·哲里木盟博物館, 『遼陳國公主墓』 1993, 文物出版社.

河北省文物研究所, 『宣化遼墓 1974~1993년 發掘調査報告書』上·下, 2001, 文物出版社.

陝西省考古研究院·法門寺博物館·寶鷄市文物局·扶風縣博物館編著 『法門寺考古發掘報告』上·下, 陝西省考古研究院田野考古報告 第45號, 2007. 文物出版社.

國立中央博物館 『다시 보는 역사편지 高麗墓誌銘』 2006.

河北省文物研究所編 『宣化遼墓壁畫』 2001, 文物出版社

中國歷史博物館·內蒙古自治區文化廳 『內蒙古遼代文物精華 契丹王朝』 2002, 中國藏學出版社.

東京國立博物館 『宮廷の榮華 唐女帝·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 1998~1999.

Abstract

A study on the Chronology of chinese(Song~Yuan) Spoons
- tenancy Fishtail-edge spoon -

Jung, Eui Do

Most of the spoons of Song and Won Dynasties, China, have been found from Buddhist temples or sites, tombs, and underground treasure pits. This work is trying to classify the periodical orders of the artefacts which contain the absolute time period and then the results of this work may be beneficial to understand spoons of Goryeo and Joseon in Korea.

Spoons of Song Dynasty seemed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Tang Dynasty without any big changes in its shape, but the edge of the grip begun to wide in the triangle shape.

This change can be also found from the Liao Empire, Northern Region, and the decorations were appeared in the wide part of the edge such as pair of fishes or the edge was shaped like the webbed feet of duck. This tendency is definitely different from the broadened spoon edge of North and South Song Dynasties.

It seemed that this wide edge finally influenced late Liao Empire and the shape of swallowtail (two divided edge) had been launched since then. From the "Chinese Spoon and Chopsticks Chronological Order" research result which was identified by the writer, it can be highly likely that this kind of swallowtail edge had been started from late Liao Empire and then settled in the Jin Dynasty(Jurchen) until Won Dynasty.

The name of 'swallowtail' has been given as of its two divided edge shape. When it comes to review the ones from Liao Empire and Song Dynasty, the edge seemed to be widened. The spoon found from the Yojinguk Princess Tomb of those periods, has clearly distinctive edge shape with pair of fish decoration. Firstly, it has been widened with the fish body inscription and then secondly the tail of the fishes were added

which result broadening the edge shape further. Therefore these two steps of widened edge finally found from the 'swallowtail' edge spoons in Sonhwayo Tomb M3, M1 mural painting, and Jin Dynasty(Jurchen).

This is also important to signify the fish decoration. Usually fish decoration appeared as a pair and this is because fish pair represent male and female or a couple's amalgamation and happiness which finally draw a large offspring prosperity.

Particularly the mirrors with pair fish decorations were very popular during the Jin Dynasty(Jurchen). Engraving the pair fish to the spoon edge had been started from the Liao Empire and then it influenced the Jin Dynasty (Jurchen) more broadly. After the decoration was introduced to the Jin, it seemed that people made the decoration more simplified which resulted the swallowtail-edged spoon.

Therefore, swallowtail-edge was only named because of its shape. But this is more important to point out that its shape is actually descended from the fish pair. The name of swallowtail-edge then can be named as a "fish-tail edge".

In the mean time, these kinds of fish-tail edges seemed to be found from late 13th Goryeo Dynasty. The "x" shape scissors found from Goryeo tombs were also fall into late 13th century and this result is widely accepted in the archaeological field.

However, fish-tail edge spoon was already appeared in early 12th century in China and even 'x' shape scissors were found in late 11th or early 12th century. It should be highlighted that Jin Dynasty(Jurchen) and Goryeo had long-time international exchanges without any disruption. Potteries and mirrors were also imported consecutively but the 'fish-tail edge' spoons were imported after a century.

Big question was lied here. Why those spoons and scissors which were found in 12th century in China had appeared in Korea after late 13th century?

It is so difficult to answer this big question right now and there is such a huge gap of a century. I will let the question be answered any time soon.

Key Words : Song, 요(Liao), 금Jin(Jurchen), Won, Tombs, Repository
underneath the Pagoda, Underground treasure pit, Swallowtail-
edge spoon, Fishtail-edge spoon, Phoenixtail-edge spoon,
fish pair decoration, '8' shape scissors, 'X' shape scissors,
international exchange